

2023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목 차

조사목적 및 조사설계

I. 조사 배경 및 목적	7
II. 조사 설계	7
1. 조사 대상 및 사례수	7
2. 조사 도구 및 조사 내용	7
3. 설문내용 및 문항의 신뢰도	9
4. 조사의 진행과 자료의 분석	9

조사결과의 분석

I. 조사결과의 분석	13
1.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	13
2. 욕구조사 결과	23
1) 개인적인 문제	23
2) 복지관 운영	30
3) 생애주기별 영역별 욕구	33
(1) 영유아 영역별 욕구	33
(2) 아동·청소년 영역별 욕구	41
(3) 청년 영역별 욕구	54
(4) 중장년 영역별 욕구	67
(5) 노인 영역별 욕구	78
4) 건의사항	85

요약 및 제언

I. 요약 및 제언	89
1. 요약	89
2. 제언	104

부록 2023년 남동구 지역장애인욕구조사 설문지	109
----------------------------------	-----

조사목적 및 조사설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조사 배경 및 목적

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양한 설문조사를 이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 만족도 조사를 9월 중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 수시로 상담을 통해 개선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매회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시설 및 프로그램 환경 개선,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방향 모색 등 조사내용을 근거로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욕구조사를 통하여 지역장애인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향후 정책방향제시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2) 남동구 지역 욕구조사를 통하여 이용인의 욕구를 알아보고, 차기년도 및 중·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 3) 욕구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용인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본 보고서는 2023년 9월에 실시된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실태에 관한 분석결과이다.

II. 조사 설계

1. 조사 대상 및 사례 수

2023년 9월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타 기관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6월 기준 남동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유형별 할당추출 후 2023년 6월 기준 복지관 연인원 유형별 할당추출 및 복지관 이용인원을 가중하여 조사 대상을 최종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350명에게 배포되었으며, 301명에게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 조사 도구 및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2021 남동구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천 장애인종합복지관, 2022 이용인 욕구 및 만족도조사 보고서(2022)」, 「고양시지속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욕구조사 보고서(2022)」,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2022)」의 설문문항을 일부 반영하고 외부 자문을 통해 설문지를 복지관 상황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명목척도,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개인적 문제, 복지관 운영, 영역별 서비스 욕구(생애주기별), 건의사항 등 기관에서 파악하고자하는 욕구를 알기위해 각 부분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표Ⅱ-1]을 참고하면 된다.

[표Ⅱ-1] 설문지 내용

구분	문항수	내용
일반적 특성	8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연령, 경제수준, 학력, 가족구성형태, 함께 사는 가족 수, 남동거주기간
장애 특성	2	주장애유형, 장애정도
개인적 문제	3	본인이나 가족이 현재 생활하며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 순위, 어려움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곳
복지관 운영	5	본 기관 이용유무, 이용기간, 알게 된 경로, 본 기관을 이용 하지 않는 이유, 복지관 선택기준
영역별 욕구 (생애주기별)	최대 21	아동(12세 이하), 청소년(13세~18세 이하), 청년(19세~38세 이하), 중장년(39세~64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문화·여가 서비스(이용경험, 이용기간, 이용목적, 이용 시 가장 중요한 것, 희망하는 서비스), 교육 서비스(이용경험, 이용기간, 이용목적, 이용 시 가장 중요한 것, 희망하는 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취업의향, 이용목적, 이용 시 가장 큰 어 려움, 희망하는 직업재활서비스, 희망하는 취업직종, 취업 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자립생활(자립의향, 자립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재가복지 서비스(일상생활 가장 큰 지원자,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분야별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건의사항	1	지역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의사항
총문항	40	

3. 설문내용 및 문항의 신뢰도

신뢰도 검증은 설문문항들이 일관성을 갖고 적절히 구성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아래의 [표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 속 어려움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 계수(α)가 .935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Ⅱ-2] 설문문항 신뢰도

신뢰도 계수(α)	문항번호	문항수
.935	3(①~⑪)	11

4. 조사의 진행과 자료의 분석

1) 자료수집 방법 및 결과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담당자가 이용인들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온라인 설문지를 발송하여 작성 후 설문지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직접 설문 응답이 가능한 이용인들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직접 응답이 불가능한 이용인들의 경우는 주부양자들이 응답하였다.

[표Ⅱ-3]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구분	설문지(명)
설문지 배부	350명
설문지 회수	301명
회 수 율(%)	86.0%

2) 조사 기간

이번 조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설문지 배부 및 회수 등의 일련의 작업들이 6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설문지 개발은 8월 14일~9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배부 및 조사기간은 9월 11일~9월 25일까지 2주간 진행 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for Windows 프로그램, jamovi 2.3.2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지의 모든 항목들은 빈도분석을 통해 그 구체적인 통계치를 산출하였고 이외에도 각 변수수준에 따라 분석방법을 변경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2023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조사결과의 분석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① 장애인과의 관계

장애인과의 관계에서는 본인 44.5%(134명), 가족 49.8%(150명), 전문지원인 5.0%(15명), 기타 0.7%(2명)로 조사되었다.

[표 I -1] 장애인과의 관계

구분	빈도(명)	비율(%)
본인	134	44.5
가족	150	49.8
전문지원인	15	5.0
기타	2	0.7
계	301	100.0

② 성별

성별 분포는 ‘남자’ 56.1%(169명), 여자 43.9%(132명)로 조사되어 남자가 여자보다 12.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2] 성별

구분	빈도(명)	비율(%)
남자	169	56.1
여자	132	43.9
계	301	100.0

③ 연령

연령분포를 보면 0-9세 이하가 14.0%(42명), 10-19세 이하가 19.3%(58명), 20-29세 이하가 16.3%(49명), 30-39세 이하가 18.9%(57명), 40-49세 이하가 3.3%(10명), 50-59세 이하가 5.0%(15명), 60세 이상이 23.3%(70명)로 나타나 60세 이상 연령대가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10-19세, 30-39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3]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0-9세	42	14.0
10-19세	58	19.3
20-29세	49	16.3
30-39세	57	18.9
40-49세	10	3.3
50-59세	15	5.0
60세 이상	70	23.2
계	301	100.0

응답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는 30-39세 이하, 60세 이하 응답자가 각각 20.1%(34명), 여자는 60세 이상이 27.3%(36명)로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응답자 연령별 성별 분포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 -4] 응답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

구분	성별		계
	남자	여자	
0-9세	23	19	32
	13.6%	14.4%	10.6%
10-19세	33	25	68
	19.5%	18.9%	22.6%
20-29세	28	21	49
	16.6%	15.9%	16.3%
30-39세	34	23	57
	20.1%	17.4%	18.9%
40-49세	7	3	5
	4.2%	2.3%	1.7%
50-59세	10	5	20
	5.9%	3.8%	6.7%
60세 이상	34	36	70
	20.1%	27.3%	23.2%
계	169	132	301
	100.0%	100.0%	100.0%

④ 경제수준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을 보면 수급자 39.9%(120명), 차상위 5.3%(16명), 비수급자(일반) 54.8%(165명)로 나타났다.

[표 I -5] 경제수준

구분	빈도(명)	비율(%)
수급자	120	39.9
차상위	16	5.3
일반	165	54.8
계	301	100.0

⑤ 학력

조사대상자의 학력 수준은 미취학이 10.2%(28명), 초등학교 재학이 15.0%(41명), 초등학교 졸업이 12.0%(33명), 중학교 재학이 5.5%(15명), 중학교 졸업이 4.4%(12명), 고등학교 재학이 6.2%(17명), 고등학교 졸업이 43.4%(119명), 대학교 재학이 1.1%(3명), 기타가 2.2%(6명)로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대학원 수료 및 졸업이 있었다.

[표 I -6] 학력

구분	빈도(명)	비율(%)
미취학	28	10.2
초등학교 재학	41	15.0
초등학교 졸업	33	12.0
중학교 재학	15	5.5
중학교 졸업	12	4.4
고등학교 재학	17	6.2
고등학교 졸업	119	43.4
대학교 재학	3	1.1
기타	6	2.2
계	274	100.0

결측값 제외(N=7)

⑥ 가족구성 형태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성형태를 보면 1인가구(독거) 16.9%(50명), 부부 8.1%(24명), 부부+자녀 49.3%(146명), 한부모+자녀 15.5%(46명), 조부모+부부+손자녀 4.8%(14명), 조부모+손자녀 1.0%(3명), 형제 3.0%(9명)로 나타나 부부+자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기타의견으로는 ‘생활시설 거주’ 등이 있었다.

[표 I-7] 가족구성 형태

구분	빈도(명)	비율(%)
1인가구(독거)	50	16.9
부부	24	8.1
부부+자녀	146	49.3
한부모+자녀	46	15.5
조부모+부부+손자녀	14	4.8
조부모+손자녀	3	1.0
형제(남매, 자매)	9	3.0
기타	4	1.4
계	296	100.0

결측값 제외(N=5)

⑦ 함께 사는 가족 수

조사대상자의 함께 사는 가족 수를 보면 1명 15.3%(45명), 2명 20.0%(59명), 3명 31.2%(92명), 4명 26.1%(77명), 5명 7.1%(21명), 7명 0.3%(1명)로 나타났다.

[표 I-8] 함께 사는 가족 수

구분	빈도(명)	비율(%)
1명	45	15.3
2명	59	20.0
3명	92	31.2
4명	77	26.1
5명	21	7.1
7명	1	0.3
계	295	100.0

당사자 포함, 결측값 제외(N=6)

⑧ 거주지

조사대상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인천시 남동구 82.7%(249명), 타 지역 17.3%(52명)으로 나타났다.

[표 I -9] 거주지

구분	빈도(명)	비율(%)
인천시 남동구	249	82.7
타 지역	52	17.3
계	301	100.0

⑨ 남동구 거주동

남동구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거주동을 살펴보면 간석동 9.2%(23명), 고잔동 0.8%(2명), 구월동 12.9%(32명), 남촌동 2.0%(5명), 논현동 9.2%(23명), 도림동 3.2%(8명), 만수동 49.0%(122명), 서창동 11.7%(29명), 장수동 2.0%(5명)로 나타나 복지관에 인접한 만수동 거주자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0] 남동구 거주동

구분	빈도(명)	비율(%)
간석동	23	9.2
고잔동	2	0.8
구월동	32	12.9
남촌동	5	2.0
논현동	23	9.2
도림동	8	3.2
만수동	122	49.0
서창동	29	11.7
장수동	5	2.0
계	249	100.0

2) 장애관련 특성

① 주장애 유형

주장애 유형으로는 지체장애 23.7%(71명), 시각장애 5.7%(17명), 뇌병변장애 10.0%(30명), 청각장애 6.7%(30명), 언어장애 4.0%(12명), 지적장애 23.4%(70명), 자폐성장애 14.7%(44명), 정신장애 7.4%(22명), 심장장애 0.3%(1명), 뇌전증장애 0.3%(1명), 미등록 3.8%(11명)로 나타나 지체장애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두 번째로 지적장애, 세 번째로 자폐성장애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I-11] 주장애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지체장애	71	23.7
시각장애	17	5.7
뇌병변장애	30	10.0
청각장애	20	6.7
언어장애	12	4.0
지적장애	70	23.4
자폐성장애	44	14.7
정신장애	22	7.4
심장장애	1	0.3
뇌전증장애	1	0.3
미등록	11	3.8
계	299	100.0

결측값 제외(N=2)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지적장애 응답자가 20.8%(35명), 여성은 지체장애 응답자가 28.2%(37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남성은 지체장애 응답자가 20.2%(34명), 여성은 지적장애 응답자가 26.7%(35명)로 응답수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응답자 성별 연령별 분포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 -12]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

구분	성별		계
	남자	여자	
지체장애	34 20.2%	37 28.2%	71 23.7%
시각장애	7 4.2%	10 7.6%	17 5.7%
뇌병변장애	17 10.1%	13 9.9%	30 10.0%
청각장애	13 7.7%	7 5.3%	20 6.7%
언어장애	10 6.0%	2 1.6%	12 4.0%
지적장애	35 20.8%	35 26.7%	70 23.4%
자폐성장애	31 18.5%	13 9.9%	44 14.7%
정신장애	11 6.5%	11 8.4%	22 7.4%
심장장애	0 0.0%	1 0.8%	1 0.3%
뇌전증장애	1 0.6%	0 0.0%	1 0.3%
미등록	9 5.4%	2 1.6%	11 3.8%
계	168 100.0%	131 100.0%	299 100.0%

결측값 제외(N=2)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에서 0~9세는 자폐성장애가 26.2%(11명)으로 가장 많았고, 10~19세는 자폐성장애 34.5%(20명), 20~29세는 지적장애 42.9%(21명), 30~39세는 지적장애 42.9%(24명), 40~49세는 지적장애 40.0%(4명), 50~59세는 정신장애 35.7%(5명), 60세 이상은 지체장애 52.8%(37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자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I -13]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

구분	연령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지체장애	2 4.8%	3 5.3%	14 28.5%	11 19.6%	2 20.0%	2 14.3%	37 52.8%	71 23.4%
시각장애	2 4.8%	2 3.4%	0 0.0%	6 10.7%	1 10.0%	0 0.0%	6 8.6%	17 5.7%
뇌병변장애	8 19.0%	9 15.5%	4 8.2%	6 10.7%	0 0.0%	1 7.1%	2 2.9%	30 10.0%
청각장애	3 7.1%	4 6.9%	2 4.1%	2 3.6%	2 20.0%	0 0.0%	7 10.0%	20 6.7%
언어장애	8 19.0%	2 3.4%	0 0.0%	0 0.0%	0 0.0%	0 0.0%	2 2.9%	12 4.0%
지적장애	1 2.4%	14 24.1%	21 42.9%	24 42.9%	4 40.0%	3 21.5%	3 4.3%	70 23.4%
자폐성장애	11 26.2%	20 34.5%	6 12.2%	5 8.9%	0 0.0%	2 14.3%	0 0.0%	44 14.7%
정신장애	1 2.4%	0 0.0%	2 4.1%	2 3.6%	1 10.0%	5 35.7%	11 15.7%	22 7.4%
심장장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4%	1 0.3%
뇌전증장애	0 0.0%	0 0.0%	0 0.0%	0 0.0%	0 0.0%	1 7.1%	0 0.0%	1 0.3%
미등록	6 14.3%	4 6.9%	0 0.0%	0 0.0%	0 0.0%	0 0.0%	1 1.4%	11 3.7%
계	42 100%	58 100%	49 100%	56 100%	10 100%	14 100%	70 100%	299 100%

② 장애 정도

조사 대상의 장애 정도 분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82.4%(239명),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7.6%(51명)로 나타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4] 장애 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39	82.4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1	17.6
계	290	100.0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지체장애가 23.8%(57명),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는 지체장애가 29.2%(14명)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구체적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I -15]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

구분	장애등급		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57 23.8%	14 29.2%	71 24.7%
시각장애	12 5.0%	5 10.4%	17 5.9%
뇌병변장애	30 12.6%	0 0.0%	30 10.5%
청각장애	17 7.1%	3 6.3%	20 7.0%
언어장애	5 2.1%	7 14.6%	12 4.2%
지적장애	59 24.7%	11 22.9%	70 24.4%
자폐성장애	41 17.2%	3 6.3%	44 15.3%
정신장애	18 7.5%	3 6.3%	21 7.4%
심장장애	0 0.0%	1 2.0%	1 0.3%
뇌전증장애	0 0.0%	1 2.0%	1 0.3%
계	239 100.0%	48 100.0%	287 100.0%

2. 욕구조사 결과

1) 개인적인 문제

① 경제적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1.3%(4명), ‘어렵지 않다.’ 7.6%(23명), ‘보통이다.’ 43.5%(131명), ‘어렵다.’ 27.9%(84명), ‘매우 어렵다.’ 19.7%(59명)로 나타났다.

[표 I -16] 경제적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4	1.3
어렵지 않다.	23	7.6
보통이다.	131	43.5
어렵다.	84	27.9
매우 어렵다.	59	19.7
계	301	100.0

② 취업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2.7%(8명), ‘어렵지 않다.’ 8.6%(26명), ‘보통이다.’ 23.6%(71명), ‘어렵다.’ 33.2%(100명), ‘매우 어렵다.’ 31.9%(96명)로 나타났다.

[표 I -17] 취업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8	2.7
어렵지 않다.	26	8.6
보통이다.	71	23.6
어렵다.	100	33.2
매우 어렵다.	96	31.9
계	301	100.0

③ 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6.0%(18명), ‘어렵지 않다.’ 12.6%(38명), ‘보통이다.’ 33.2%(100명), ‘어렵다.’ 33.9%(102명), ‘매우 어렵다.’ 14.3%(43명)로 나타났다.

[표 I -18] 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18	6.0
어렵지 않다.	38	12.6
보통이다.	100	33.2
어렵다.	102	33.9
매우 어렵다.	43	14.3
계	301	100.0

④ 교육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6.3%(19명), ‘어렵지 않다.’ 7.0%(21명), ‘보통이다.’ 32.6%(98명), ‘어렵다.’ 35.5%(107명), ‘매우 어렵다.’ 18.6%(56명)로 나타났다.

[표 I -19] 교육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19	6.3
어렵지 않다.	21	7.0
보통이다.	98	32.6
어렵다.	107	35.5
매우 어렵다.	56	18.6
계	301	100.0

⑤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5.0%(15명), ‘어렵지 않다.’ 10.6%(32명), ‘보통이다.’ 40.5%(122명), ‘어렵다.’ 27.2%(82명), ‘매우 어렵다.’ 16.7%(50명)로 나타났다.

[표 I -20]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15	5.0
어렵지 않다.	32	10.6
보통이다.	122	40.5
어렵다.	82	27.2
매우 어렵다.	50	16.7
계	301	100.0

⑥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7.3%(22명), ‘어렵지 않다.’ 11.6%(35명), ‘보통이다.’ 27.9%(84명), ‘어렵다.’ 33.3%(100명), ‘매우 어렵다.’ 19.9%(60명)로 나타났다.

[표 I -21]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22	7.3
어렵지 않다.	35	11.6
보통이다.	84	27.9
어렵다.	100	33.3
매우 어렵다.	60	19.9
계	301	100.0

⑦ 가족관계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가족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6.3%(19명), ‘어렵지 않다.’ 20.3%(61명), ‘보통이다.’ 37.5%(113명), ‘어렵다.’ 21.3%(64명), ‘매우 어렵다.’ 14.6%(44명)로 나타났다.

[표 I -22] 가족관계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19	6.3
어렵지 않다.	61	20.3
보통이다.	113	37.5
어렵다.	64	21.3
매우 어렵다.	44	14.6
계	301	100.0

⑧ 심리적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6.3%(19명), ‘어렵지 않다.’ 12.0%(36명), ‘보통이다.’ 35.5%(107명), ‘어렵다.’ 31.6%(95명), ‘매우 어렵다.’ 14.6%(44명)로 나타났다.

[표 I -23] 심리적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19	6.3
어렵지 않다.	36	12.0
보통이다.	107	35.5
어렵다.	95	31.6
매우 어렵다.	44	14.6
계	301	100.0

⑨ 대인관계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6.0%(18명), ‘어렵지 않다.’ 10.3%(31명), ‘보통이다.’ 32.6%(98명), ‘어렵다.’ 30.9%(93명), ‘매우 어렵다.’ 20.2%(61명)로 나타났다.

[표 I -24] 대인관계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18	6.0
어렵지 않다.	31	10.3
보통이다.	98	32.6
어렵다.	93	30.9
매우 어렵다.	61	20.2
계	301	100.0

⑩ 일상생활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5.6%(17명), ‘어렵지 않다.’ 12.0%(36명), ‘보통이다.’ 35.2%(106명), ‘어렵다.’ 29.9%(90명), ‘매우 어렵다.’ 17.3%(52명)로 나타났다.

[표 I -25] 일상생활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17	5.6
어렵지 않다.	36	12.0
보통이다.	106	35.2
어렵다.	90	29.9
매우 어렵다.	52	17.3
계	301	100.0

⑪ 문화·여가생활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문화·여가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5.0%(15명), ‘어렵지 않다.’ 11.0%(33명), ‘보통이다.’ 30.2%(91명), ‘어렵다.’ 33.9%(102명), ‘매우 어렵다.’ 19.9%(60명)로 나타났다.

[표 I -26] 문화·여가생활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15	5.0
어렵지 않다.	33	11.0
보통이다.	91	30.2
어렵다.	102	33.9
매우 어렵다.	60	19.9
계	301	100.0

⑫ 일상생활 중 가장 어려운 순위

일상생활 중 가장 어려운 1순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30.0%(82명)로 가장 많았고, 2순위에서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15.7%(42명)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일상생활 중 가장 어려운 순위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I -27] 일상생활 중 가장 어려운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경제적 어려움	82	30.0	33	12.4	115
취업의 어려움	50	18.3	40	15.0	90
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	7	2.6	24	9.0	31
교육의 어려움	31	11.4	28	10.5	59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	27	9.9	34	12.7	61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	9	3.3	19	7.1	28
가족관계의 어려움	8	2.9	5	1.9	13
심리적 어려움	27	9.9	24	9.0	51
일상생활의 어려움	20	7.3	42	15.7	62
문화·여가생활의 어려움	12	4.4	18	6.7	30
계	273	100.0	267	100.0	540

결측값 제외 1순위(N=28), 2순위(N=34)

⑬ 어려움 발생 시 도움 요청하는 곳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에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지 물었을 때 ‘스스로 해결’이 14.6%(44명), ‘가족 내에서 해결’ 56.8%(171명), ‘행정복지센터·복지기관 등에 도움 요청’ 17.3%(52명), ‘인터넷 등 정보망 이용’ 4.3%(13명), ‘친구·이웃·종교 등에 도움 요청’이 4.4%(13명), ‘공교육기관(학교 등)에 도움 요청’이 1.0%(3명), ‘기타’가 1.7%(5명)로 나타나 ‘가족에게 도움 요청’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병원, 요양보호사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I -28] 어려움 발생 시 도움 요청하는 곳

구분	빈도(명)	비율(%)
스스로 해결	44	14.6
가족 내에서 해결	171	56.8
행정복지센터·복지기관 등에 도움 요청	52	17.3
인터넷 등 정보망 이용	13	4.3
친구·이웃·종교 등에 도움 요청	13	4.3
공교육기관(학교 등)에 도움 요청	3	1.0
기타	5	1.7
계	301	100.0

2) 복지관 운영

① 복지관 이용유무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유무에 대해 물었을 때, ‘예’ 86.4%(260명), ‘아니요’ 13.6%(41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80%이상이 복지관을 이용해봤다고 응답하였다.

[표 I -29] 복지관 이용유무

구분	빈도(명)	비율(%)
예	260	86.4
아니요	41	13.6
계	301	100.0

② 복지관 이용기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기간에 대해 물었을 때, ‘1년 이하’ 14.6%(37명), ‘1년 초과~5년 이하’ 26.4%(67명), ‘5년 초과 10년 이하’ 38.6%(98명), ‘10년 초과’ 20.4%(52명)로, 5년 초과~10년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30] 복지관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37	14.6
1년 초과~5년 이하	67	26.4
5년 초과~10년 이하	98	38.6
10년 초과	52	20.4
계	254	100.0

결측값 제외(N=6)

③ 알게 된 경로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 물었을 때, ‘지나가다 우연히’ 6.5%(16명),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 16.3%(40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2.0%(5명), ‘인터넷(홈페이지)’ 11.7%(29명), ‘이웃의 소개나 권유로’ 46.3%(114명),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서’ 17.2%(42명)로 나타났다.

[표 I -31] 알게 된 경로

구분	빈도(명)	비율(%)
지나가다 우연히	16	6.5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	40	16.3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5	2.0
인터넷(홈페이지)	29	11.7
이웃의 소개나 권유로	114	46.3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서	42	17.2
계	246	100.0

결측값 제외(N=14)

④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복지관이 있는지 잘 몰라서’ 13.9%(5명), ‘거리가 너무 멀어서’ 22.2%(8명), ‘집안일이나 외부활동에 바빠서’ 8.3%(3명), ‘건강상 거동이 불편해서’ 27.8%(10명), ‘교통이 불편해서’ 11.1%(4명), ‘이용할 프로그램이 없어서’ 16.7%(6명)로 나타났다.

[표 I -32]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복지관이 있는지 잘 몰라서	5	13.9
거리가 너무 멀어서	8	22.2
집안일이나 외부활동에 바빠서	3	8.3
건강상 거동이 불편해서	10	27.8
교통이 불편해서	4	11.1
이용할 프로그램이 없어서	6	16.7
계	36	100.0

결측값 제외(N=5)

⑤ 복지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

복지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 물었을 때, ‘이동의 편리성(교통)’ 23.1%(69명), ‘프로그램의 다양성’ 33.4%(100명), ‘이용료’ 10.7%(32명), ‘이용 대기기간’ 2.7%(8명), ‘직원의 친절성’ 10.0%(30명),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전문성’ 20.1%(60명)로 나타났다.

[표 I -33] 복지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

구분	빈도(명)	비율(%)
이동의 편리성(교통)	69	23.1
프로그램의 다양성	100	33.4
이용료	32	10.7
이용 대기기간	8	2.7
직원의 친절성	30	10.0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전문성	60	20.1
계	299	100.0

결측값 제외(N=2)

3) 생애주기별 영역별 욕구

(1) 아동 영역별 욕구

(1-1) 장애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장애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물어본 결과 ‘조기개입 프로그램’ 29.9%(20명), ‘기초학습능력 향상프로그램’ 17.9%(12명), ‘다영역 협력 프로그램’ 6.0%(4명), ‘방과후 프로그램’ 10.4%(7명), ‘또래관계 형성 프로그램’ 25.4%(17명), ‘신체기능 프로그램’ 10.4%(7명)로 나타났다.

[표 I -34] 장애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조기개입 프로그램	20	29.9
기초학습능력 향상프로그램	12	17.9
다영역 협력 프로그램	4	6.0
방과후 프로그램	7	10.4
또래관계 형성 프로그램	17	25.4
신체기능 프로그램	7	10.4
계	67	100.0

(1-2)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①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14.9%(10명), ‘아니요’가 85.1%(57명)로 나타났다.

[표 I -35]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0	14.9
아니요	57	85.1
계	67	100.0

②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0명 모두 ‘1년 이하’로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36]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10	100.0
계	10	100.0

③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여가시간 활용’ 7.5%(5명), ‘또래와의 어울림’ 32.8%(22명), ‘사회성 향상’ 20.9%(14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7.5%(5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11.9%(8명), ‘특기적성 개발’ 3.0%(2명), ‘다양한 체험’ 16.4%(11명)로 ‘또래와의 어울림’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37]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여가시간 활용	5	7.5
또래와의 어울림	22	32.8
사회성 향상	14	20.9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5	7.5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8	11.9
특기적성 개발	2	3.0
다양한 체험	11	16.4
계	67	100.0

④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13.9%(17명), ‘프로그램 일정’ 17.2%(21명), ‘프로그램 내용’ 34.4%(42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8.9%(23명), ‘지원인력’ 5.7%(7명), ‘장애인 편의시설’ 3.3%(4명), ‘개별서비스’ 4.9%(6명), ‘그룹서비스’ 1.7%(2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38]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	17	13.9
프로그램 일정	21	17.2
프로그램 내용	42	34.4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23	18.9
지원인력	7	5.7
장애인 편의시설	4	3.3
개별서비스	6	4.9
그룹서비스	2	1.7
계	122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19.5%(24명), ‘문화 체험’ 13.0%(16명), ‘동아리활동’ 15.4%(19명), ‘나들이·여행’ 18.8%(23명), ‘스포츠 교실’ 13.0%(16명), ‘가족 프로그램’ 20.3%(25명)로 나타났으며 ‘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39]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취미교양(음악, 공예 등 취미생활)	24	19.5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등)	16	13.0
동아리활동(음악, 연극 등)	19	15.4
나들이·여행	23	18.8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요가 등)	16	13.0
가족 프로그램 (가족캠프, 형제자매프로그램 등)	25	20.3
계	123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1-3) 교육 서비스

①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교육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52.2%(35명), ‘아니요’가 47.8%(32명)로 나타났다.

[표 I -40]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35	52.2
아니요	32	47.8
계	67	100.0

② 교육 서비스 이용기간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3년 미만’가 40.0%(14명), ‘3년 이상’이 60.0%(21명)로 나타났다.

[표 I -41] 교육 서비스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3년 미만	14	40.0
3년 이상	21	60.0
계	35	100.0

③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34.3%(23명), ‘사회성 향상’ 17.9%(12명), ‘특기적성 개발’ 6.0%(4명), ‘학습능력 향상’ 9.0%(6명), ‘다양한 체험’ 7.5%(5명), ‘자립능력 향상’ 9.0%(6명), ‘의사소통기능 향상’ 16.3%(11명)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42]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능력 향상	23	34.3
사회성 향상	12	17.9
특기적성 개발	4	6.0
학습능력 향상	6	9.0
다양한 체험	5	7.5
자립능력 향상	6	9.0
의사소통기능 향상	11	16.3
계	67	100.0

④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1.7%(19명), ‘프로그램 일정’ 17.8%(23명), ‘프로그램 내용’ 40.3%(52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9.4%(25명), ‘지원인력’ 1.6%(2명), ‘장애인 편의시설’ 1.6%(2명), ‘개별서비스’ 3.9%(5명), ‘그룹서비스’ 0.7%(1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43]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	19	14.7
프로그램 일정	23	17.8
프로그램 내용	52	40.3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25	19.4
지원인력	2	1.6
장애인 편의시설	2	1.6
개별서비스	5	3.9
그룹서비스	1	0.7
계	129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일상생활훈련’이 35.7%(46명),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5.5%(20명), ‘사회적응 프로그램’ 30.2%(39명), ‘학업보충 프로그램’ 3.9%(5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10.1%(13명), 인권, 권익옹호교육 1.5%(2명)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44]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훈련	46	35.7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20	15.5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역사회시설 이용)	39	30.2
학업보충 프로그램	5	3.9
안전 및 건강교육	4	3.1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예술, 체육 등)	13	10.1
인권, 권익옹호교육	2	1.5
계	129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2) 청소년 영역별 욕구

(2-1) 장애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장애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립준비 프로그램’ 12.5%(4명), ‘자기결정훈련 프로그램’ 9.4%(3명),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28.1%(9명), ‘방과후 프로그램’ 15.6%(5명), ‘또래관계 형성 프로그램’ 28.1%(9명), ‘방학기간 프로그램’ 6.3%(2명)로 나타났다.

[표 I -45] 장애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자립준비 프로그램	4	12.5
자기결정훈련 프로그램	3	9.4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9	28.1
방과후 프로그램	5	15.6
또래관계 형성 프로그램	9	28.1
방학기간 프로그램	2	6.3
계	32	100.0

결측값 제외(N=1)

(2-2)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①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72.7%(24명), ‘아니요’가 27.3%(9명)로 나타났다.

[표 I -46]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24	72.7
아니요	9	27.3
계	33	100.0

②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47.8%(11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39.1%(9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13.1%(3명)로 나타났다.

[표 I -47]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11	47.8
1년 초과 5년 이하	9	39.1
5년 초과 10년 이하	3	13.1
계	23	100.0

결측값 제외(N=1)

③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대해 물어본 결과 ‘또래와의 어울림’ 33.3%(11명), ‘사회성 향상’ 33.3%(11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9.2%(3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12.1%(4명), ‘다양한 체험’ 12.1%(4명)로 나타났다.

[표 I -48]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또래와의 어울림	11	33.3
사회성 향상	11	33.3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3	9.2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4	12.1
다양한 체험	4	12.1
계	33	100.0

④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6.0%(4명), ‘프로그램 일정’ 17.9%(12명), ‘프로그램 내용’ 41.8%(28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3.4%(9명), ‘지원인력’ 9.0%(6명), ‘그룹서비스’ 11.9%(8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49]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	4	6.0
프로그램 일정	12	17.9
프로그램 내용	28	41.8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9	13.4
지원인력	6	9.0
그룹서비스	8	11.9
계	67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19.4%(12명), ‘문화 체험’ 19.4%(12명), ‘동아리활동’ 11.3%(7명), ‘나들이·여행’ 16.1%(10명), ‘스포츠 교실’ 24.2%(15명), ‘가족 프로그램’ 9.6%(6명)로 나타났으며 ‘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50]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취미교양(음악, 공예 등 취미생활)	12	19.4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등)	12	19.4
동아리활동(음악, 연극 등)	7	11.3
나들이·여행	10	16.1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요가 등)	15	24.2
가족 프로그램 (가족캠프, 형제자매프로그램 등)	6	9.6
계	62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2-3) 교육 서비스

①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교육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54.5%(18명), ‘아니요’가 45.5%(15명)로 나타났다.

[표 I -51]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8	54.5
아니요	15	45.5
계	33	100.0

② 교육 서비스 이용기간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3년 미만’가 41.2%(7명), ‘3년 이상’이 58.8%(10명)로 나타났다.

[표 I -52] 교육 서비스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3년 미만	7	41.2
3년 이상	10	58.8
계	17	100.0

결측값 제외(N=1)

③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36.4%(12명), ‘사회성 향상’ 12.1%(4명), ‘특기적성 개발’ 3.0%(1명), ‘학습능력 향상’ 18.2%(6명), ‘다양한 체험’ 9.1%(3명), ‘자립능력 향상’ 12.1%(4명), ‘의사소통기능 향상’ 9.1%(3명)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53]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능력 향상	12	36.4
사회성 향상	4	12.1
특기적성 개발	1	3.0
학습능력 향상	6	18.2
다양한 체험	3	9.1
자립능력 향상	4	12.1
의사소통기능 향상	3	9.1
계	33	100.0

④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9.5%(6명), ‘프로그램 일정’ 26.9%(17명), ‘프로그램 내용’ 41.3%(26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7.5%(11명), ‘지원인력’ 1.6%(1명), ‘장애인 편의시설’ 1.6%(1명), ‘그룹서비스’ 1.6%(1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54]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	6	9.5
프로그램 일정	17	26.9
프로그램 내용	26	41.3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1	17.5
지원인력	1	1.6
장애인 편의시설	1	1.6
그룹서비스	1	1.6
계	63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일상생활훈련’이 14.1%(9명),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29.7%(19명), ‘사회적응 프로그램’ 37.5%(24명), ‘학업보충 프로그램’ 4.7%(3명), ‘안전 및 건강교육’ 4.7%(3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9.6%(6명)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55]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훈련	9	14.1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9	29.7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역사회시설 이용)	24	37.5
학업보충 프로그램	3	4.7
안전 및 건강교육	3	4.7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예술, 체육 등)	6	9.3
계	64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2-4) 직업재활 서비스

① 향후 취업 의사

향후 취업 의사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72.7%(24명),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이 27.3%(9명)로 나타나 응답자 중 2/3 이상이 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56] 향후 취업 의사

구분	빈도(명)	비율(%)
예	24	72.7
아니요	9	27.3
계	33	100.0

②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에 대해 물었을 때, ‘일상생활훈련’이 8.3%(2명), ‘취업 현장의 체험’ 8.3%(2명), ‘직업능력 향상’ 16.7%(4명), ‘취업 및 창업’ 4.2%(1명), ‘사회적응능력 향상’ 37.5%(9명), ‘사회적 안정·소속감’ 16.7%(4명), ‘삶의 보람 및 성취감’ 8.3%(2명)로 나타나 ‘사회적응능력 향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57]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훈련	2	8.3
취업현장의 체험	2	8.3
직업능력 향상	4	16.7
취업 및 창업	1	4.2
사회적응능력 향상	9	37.5
사회적 안정·소속감	4	16.7
삶의 보람 및 성취감	2	8.3
계	24	100.0

③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 4.2%(1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8.3%(2명), ‘긴 대기기간’ 29.2%(7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33.3%(8명),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16.7%(4명),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8.3%(2명)로 나타났다.

[표 I -58]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에 대한 부담	1	4.2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2	8.3
긴 대기기간	7	29.2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8	33.3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4	16.7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2	8.3
계	24	100.0

④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직업상담 및 평가’가 8.7%(4명), ‘직업 적응훈련’ 37.0%(17명), ‘자격증 취득교육’ 10.9%(5명), ‘직업훈련’ 39.1%(18명), ‘취업알선 및 연계’ 4.3%(2명)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59]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직업상담 및 평가	4	8.7
직업적응훈련	17	37.0
자격증 취득교육	5	10.9
직업훈련	18	39.1
취업알선 및 연계	2	4.3
계	46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⑤ 희망하는 직종

희망하는 직종중의 응답 분포는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 20.8%(5명), ‘물류서비스(택배 등)’ 12.5%(3명), ‘서비스직(식당, 카페 등)’ 37.5%(9명), ‘사무직’ 8.3%(2명), ‘제과제빵, 요리사 등’ 16.7%(4명), ‘요양보호사 등’ 4.2%(1명)로 나타났다.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60] 희망하는 직종

구분	빈도(명)	비율(%)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	5	20.8
물류서비스(택배 등)	3	12.5
서비스직(식당, 카페 등)	9	37.5
사무직	2	8.3
제과제빵, 요리사 등	4	16.7
요양보호사 등	1	4.2
계	24	100.0

⑥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장애정도가 심해서’ 88.9%(8명),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11.1%(1명)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I-61]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장애정도가 심해서	8	88.9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1	11.1
계	9	100.0

(2-5) 자립생활

① 자립 의향

자립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가 54.5%(18명), ‘아니요’가 45.5%(15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립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I -62] 자립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8	54.5
아니요	15	45.5
계	33	100.0

②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일상생활’이 33.3%(6명), ‘경제적 어려움’ 16.7%(3명), ‘사회적 관계’ 38.8%(7명),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5.6%(1명), ‘응급상황 대처’ 5.6%(1명)로 나타났다.

[표 I -63]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청소, 식사, 이동 등)	6	33.3
경제적 어려움	3	16.7
사회적 관계(이웃 등)	7	38.8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1	5.6
응급상황 대처	1	5.6
계	18	100.0

③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경제적 지원’ 25.7%(9명), ‘직업 재활, 취업 지원’ 31.4%(11명), ‘주거 지원’ 2.9%(1명), ‘일상생활 활동 지원’ 34.3%(12명), ‘활동지원사, 가사도우미 지원’ 5.7%(2명)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활동 지원 및 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직업재활, 취업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64]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적 지원	9	25.7
직업재활, 취업 지원	11	31.4
주거 지원	1	2.9
일상생활 활동 지원 및 훈련	12	34.3
활동지원사, 가사도우미 지원	2	5.7
계	35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④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 73.3%(11명),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20.0%(3명), ‘기타’ 6.7%(1명)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표 I -65]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서	11	73.3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3	20.0
기타	1	6.7
계	15	100.0

(3) 청년 영역별 욕구

(3-1)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22.3%(23명),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28.2%(29명), ‘평생교육 프로그램’ 25.2%(26명),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8.7%(9명), ‘케어서비스’ 3.9%(4명), ‘가족지원 프로그램’ 1.0%(1명),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1.9%(2명), ‘경제적 지원 서비스’ 6.9%(7명),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1.9%(2명)로 나타났다.

[표 I -66]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자립지원 프로그램	23	22.3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29	28.2
평생교육 프로그램	26	25.2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9	8.7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4	3.9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등)	1	1.0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2	1.9
경제적 지원 서비스	7	6.9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2	1.9
계	103	100.0

결측값 제외(N=3)

(3-2)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①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56.6%(60명), ‘아니요’가 43.4%(46명)로 나타났다.

[표 I -67]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60	56.6
아니요	46	43.4
계	106	100.0

②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20.0%(10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38.0%(19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42.0%(21명)로 나타났다.

[표 I -68]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10	20.0
1년 초과 5년 이하	19	38.0
5년 초과 10년 이하	21	42.0
계	50	100.0

결측값 제외(N=10)

③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여가시간 활용’ 15.1%(16명), ‘또래와의 어울림’ 15.1%(16명), ‘사회성 향상’ 24.5%(26명),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23.6%(25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5.7%(6명), ‘특기적성 개발’ 0.9%(1명), ‘다양한 체험’ 15.1%(16명)로 나타났다.

[표 I -69]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여가시간 활용	16	15.1
또래와의 어울림	16	15.1
사회성 향상	26	24.5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25	23.6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6	5.7
특기적성 개발	1	0.9
다양한 체험	16	15.1
계	106	100.0

④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9.3%(18명), ‘프로그램 일정’ 26.9%(52명), ‘프로그램 내용’ 34.7%(67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8.8%(17명), ‘지원인력’ 8.8%(17명), ‘장애인 편의시설’ 6.8%(13명), ‘개별서비스’ 2.1%(4명), ‘그룹서비스’ 2.6%(5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70]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	18	9.3
프로그램 일정	52	26.9
프로그램 내용	67	34.7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7	8.8
지원인력	17	8.8
장애인 편의시설	13	6.8
개별서비스	4	2.1
그룹서비스	5	2.6
계	193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21.4%(42명), ‘문화 체험’ 20.9%(41명), ‘동아리활동’ 13.3%(26명), ‘나들이·여행’ 27.0%(53명), ‘스포츠 교실’ 12.3%(24명), ‘가족 프로그램’ 9.6%(10명)로 나타났으며 ‘나들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71]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취미교양(음악, 공예 등 취미생활)	42	21.4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등)	41	20.9
동아리활동(음악, 연극 등)	26	13.3
나들이·여행	53	27.0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요가 등)	24	12.3
가족 프로그램 (가족캠프, 형제자매프로그램 등)	10	5.1
계	196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3-3) 교육 서비스

①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교육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49.1%(52명), ‘아니요’가 50.9%(54명)로 나타났다.

[표 I -72]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52	49.1
아니요	54	50.9
계	106	100.0

② 교육 서비스 이용기간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3년 미만’가 47.5%(19명), ‘3년 이상’이 52.5%(21명)로 나타났다.

[표 I -73] 교육 서비스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3년 미만	19	47.5
3년 이상	21	52.5
계	40	100.0

결측값 제외(N=10)

③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27.4%(29명), ‘사회성 향상’ 25.5%(27명), ‘특기적성 개발’ 6.6%(7명), ‘학습능력 향상’ 3.8%(4명), ‘다양한 체험’ 17.0%(18명), ‘자립능력 향상’ 12.3%(13명), ‘의사소통기능 향상’ 7.4%(8명)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74]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능력 향상	29	27.4
사회성 향상	27	25.5
특기적성 개발	7	6.6
학습능력 향상	4	3.8
다양한 체험	18	17.0
자립능력 향상	13	12.3
의사소통기능 향상	8	7.4
계	106	100.0

④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10.9%(21명), ‘프로그램 일정’ 24.4%(47명), ‘프로그램 내용’ 36.3%(70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3.0%(25명), ‘지원인력’ 5.7%(11명), ‘장애인 편의시설’ 5.7%(11명), ‘개별서비스’ 2.5%(5명), ‘그룹서비스’ 1.5%(3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75]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	21	10.9
프로그램 일정	47	24.4
프로그램 내용	70	36.3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25	13.0
지원인력	11	5.7
장애인 편의시설	11	5.7
개별서비스	5	2.5
그룹서비스	3	1.5
계	193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일상생활훈련’이 23.7%(45명),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8.4%(35명), ‘사회적응 프로그램’ 26.3%(50명), ‘직업 및 적성개발 교육’ 19.5%(37명), ‘안전 및 건강교육’ 3.2%(6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8.9%(17명)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일상생활훈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76]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훈련	45	23.7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35	18.4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역사회시설 이용)	50	26.3
직업 및 적성개발 교육	37	19.5
안전 및 건강교육	6	3.2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예술, 체육 등)	17	8.9
계	190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3-4) 직업재활 서비스

① 향후 취업 의사

향후 취업 의사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73.6%(78명),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이 26.4%(28명)로 나타나 응답자 중 2/3 이상이 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77] 향후 취업 의사

구분	빈도(명)	비율(%)
예	78	73.6
아니요	28	26.4
계	106	100.0

②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에 대해 물었을 때, ‘일상생활훈련’이 16.7%(13명), ‘취업현장의 체험’ 17.9%(14명), ‘직업능력 향상’ 10.3%(8명), ‘취업 및 창업’ 19.2%(15명), ‘사회적응능력 향상’ 22.5%(16명), ‘사회적 안정·소속감’ 3.8%(3명), ‘삶의 보람 및 성취감’ 11.6%(9명)로 나타나 ‘사회적응능력 향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78]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훈련	13	16.7
취업현장의 체험	14	17.9
직업능력 향상	8	10.3
취업 및 창업	15	19.2
사회적응능력 향상	16	20.5
사회적 안정·소속감	3	3.8
삶의 보람 및 성취감	9	11.6
계	78	100.0

③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 6.4%(5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0.3%(8명), ‘긴 대기기간’ 12.8%(10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7.9%(14명),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11.5%(9명),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38.5%(30명), ‘기타’ 2.6%(2명)로 나타났다.

[표 I -79]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에 대한 부담	5	6.4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8	10.3
긴 대기기간	10	12.8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4	17.9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9	11.5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30	38.5
기타	2	2.6
계	78	100.0

④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직업상담 및 평가’가 4.2%(6명), ‘직업 적응훈련’ 35.2%(50명), ‘자격증 취득교육’ 10.6%(15명), ‘직업훈련’ 25.4%(36명), ‘취업알선 및 연계’ 23.9%(34명), ‘기타’ 0.7%(1명)로 나타났다.

[표 I -80]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직업상담 및 평가	6	4.2
직업적응훈련	50	35.2
자격증 취득교육	15	10.6
직업훈련	36	25.4
취업알선 및 연계	34	23.9
기타	1	0.7
계	142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⑤ 희망하는 직종

희망하는 직종의 응답 분포는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 30.1%(22명), ‘물류서비스(택배 등)’ 2.7%(2명), ‘서비스직(식당, 카페 등)’ 24.7%(18명), ‘사무직’ 9.6%(7명), ‘제과제빵, 요리사 등’ 23.3%(17명), ‘미용, 피부관리사 등’ 2.7%(2명), ‘요양보호사 등’ 2.7%(2명), ‘청소서비스직’ 4.2%(3명)로 나타났으며,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81] 희망하는 직종

구분	빈도(명)	비율(%)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	22	30.1
물류서비스(택배 등)	2	2.7
서비스직(식당, 카페 등)	18	24.7
사무직	7	9.6
제과제빵, 요리사 등	17	23.3
미용, 피부관리사 등	2	2.7
요양보호사 등	2	2.7
청소서비스직	3	4.2
계	73	100.0

결측값 제외(N=5)

⑥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장애정도가 심해서’ 64.3%(18명),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10.7%(3명),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10.7%(3명),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14.3%(4명)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I-82]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장애정도가 심해서	18	64.3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3	10.7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3	10.7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4	14.3
계	28	100.0

(3-5) 자립생활

① 자립 의향

자립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가 55.7%(59명), ‘아니요’가 44.3%(47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립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I -83] 자립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예	59	55.7
아니요	47	44.3
계	106	100.0

②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일상생활’이 30.5%(18명), ‘경제적 어려움’ 13.6%(8명), ‘사회적 관계’ 18.6%(11명),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10.2%(6명), ‘응급상황 대처’ 15.3%(9명), ‘기타’ 1.6%(1명)로 나타났다.

[표 I -84]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청소, 식사, 이동 등)	18	30.5
경제적 어려움	8	13.6
건강관리	6	10.2
사회적 관계(이웃 등)	11	18.6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6	10.2
응급상황 대처	9	15.3
기타	1	1.6
계	59	100.0

③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경제적 지원’ 22.6%(24명), ‘건강 관리’ 7.5%(8명), ‘직업재활, 취업 지원’ 18.9%(20명), ‘주거 지원’ 7.5%(8명), ‘일상생활 활동 지원’ 25.6%(27명), ‘활동지원사, 가사도우미 지원’ 17.0%(18명), ‘정서지원’ 0.9%(1명)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활동 지원 및 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85]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적 지원	24	22.6
건강관리	8	7.5
직업재활, 취업 지원	20	18.9
주거 지원	8	7.5
일상생활 활동 지원 및 훈련	27	25.6
활동지원사, 가사도우미 지원	18	17.0
정서지원	1	0.9
계	106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④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 48.9%(23명),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2.1%(1명),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44.7%(21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3%(2명)로 나타났다.

[표 I -86]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서	23	48.9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	2.1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21	44.7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	4.3
계	47	100.0

(4) 중장년 영역별 욕구

(4-1)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15.6%(7명),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11.1%(5명), ‘평생교육 프로그램’ 33.3%(15명),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8.9%(4명), ‘케어서비스’ 6.7%(3명), ‘가족지원 프로그램’ 2.2%(1명),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2.2%(1명), ‘경제적 지원 서비스’ 6.7%(3명),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13.3%(6명)로 나타났다.

[표 I -87]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자립지원 프로그램	7	15.6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5	11.1
평생교육 프로그램	15	33.3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4	8.9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3	6.7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등)	1	2.2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1	2.2
경제적 지원 서비스	3	6.7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6	13.3
계	45	100.0

(4-2)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①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77.8%(35명), ‘아니요’가 22.2%(10명)로 나타났다.

[표 I -88]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35	77.8
아니요	10	22.2
계	45	100.0

②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15.4%(4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30.8%(8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53.8%(14명)로 나타났다.

[표 I -89]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4	15.4
1년 초과 5년 이하	8	30.8
5년 초과 10년 이하	14	53.8
계	26	100.0

결측값 제외(N=9)

③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여가시간 활용’ 46.7%(21명), ‘또래와의 어울림’ 4.4%(2명), ‘사회성 향상’ 6.7%(3명),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20.0%(9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4.4%(2명), ‘다양한 체험’ 17.8%(8명)로 나타났다.

[표 I -90]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여가시간 활용	21	46.7
또래와의 어울림	2	4.4
사회성 향상	3	6.7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9	20.0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2	4.4
다양한 체험	8	17.8
계	45	100.0

④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18.3%(15명), ‘프로그램 일정’ 18.3%(15명), ‘프로그램 내용’ 37.8%(31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5.9%(13명), ‘지원인력’ 2.4%(2명), ‘장애인 편의시설’ 2.4%(2명), ‘개별서비스’ 3.7%(3명), ‘그룹서비스’ 1.2%(1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91]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	15	18.3
프로그램 일정	15	18.3
프로그램 내용	31	37.8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3	15.9
지원인력	2	2.4
장애인 편의시설	2	2.4
개별서비스	3	3.7
그룹서비스	1	1.2
계	82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33.8%(27명), ‘문화 체험’ 20.0%(16명), ‘동아리활동’ 12.5%(10명), ‘나들이·여행’ 21.3%(17명), ‘스포츠 교실’ 8.7%(7명), ‘가족 프로그램’ 3.7%(3명)로 나타났으며 ‘취미교양’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92]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취미교양(음악, 공예 등 취미생활)	27	33.8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등)	16	20.0
동아리활동(음악, 연극 등)	10	12.5
나들이·여행	17	21.3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요가 등)	7	8.7
가족 프로그램 (가족캠프, 형제자매프로그램 등)	3	3.7
계	80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4-3) 교육 서비스

①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교육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26.7%(12명), ‘아니요’가 73.3%(33명)로 나타났다.

[표 I -93]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2	26.7
아니요	33	73.3
계	45	100.0

② 교육 서비스 이용기간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3년 미만’가 41.7%(5명), ‘3년 이상’이 58.3(7명)로 나타났다.

[표 I -94] 교육 서비스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3년 미만	5	41.7
3년 이상	7	58.3
계	12	100.0

③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22.2%(10명), ‘사회성 향상’ 8.9%(4명), ‘특기적성 개발’ 2.2%(1명), ‘학습능력 향상’ 2.2%(1명), ‘다양한 체험’ 51.2%(23명), ‘자립능력 향상’ 4.4%(2명), ‘의사소통기능 향상’ 8.9%(4명)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95]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능력 향상	10	22.2
사회성 향상	4	8.9
특기적성 개발	1	2.2
학습능력 향상	1	2.2
다양한 체험	23	51.2
자립능력 향상	2	4.4
의사소통기능 향상	4	8.9
계	45	100.0

④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18.1%(15명), ‘프로그램 일정’ 27.7%(23명), ‘프로그램 내용’ 31.3%(26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5.7%(13명), ‘장애인 편의시설’ 3.6%(3명), ‘개별서비스’ 3.6%(3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96]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	15	18.1
프로그램 일정	23	27.7
프로그램 내용	26	31.3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3	15.7
장애인 편의시설	3	3.6
개별서비스	3	3.6
계	83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일상생활훈련’이 20.3%(16명),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1.4%(9명), ‘사회적응 프로그램’ 16.5%(13명), ‘직업 및 적성개발 교육’ 17.7%(14명), ‘안전 및 건강교육’ 11.4%(9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13.9%(11명), ‘인권, 권익옹호교육’ 8.8%(7명)로 나타났다.

[표 I -97]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훈련	16	20.3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9	11.4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역사회시설 이용)	13	16.5
직업 및 적성개발 교육	14	17.7
안전 및 건강교육	9	11.4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예술, 체육 등)	11	13.9
인권, 권익옹호교육	7	8.8
계	79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4-4) 직업재활 서비스

① 향후 취업 의사

향후 취업 의사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40.0%(18명),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이 60.0%(27명)로 나타났다.

[표 I -98] 향후 취업 의사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8	40.0
아니요	27	60.0
계	45	100.0

②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에 대해 물었을 때, ‘일상생활훈련’이 11.8%(2명), ‘취업 현장의 체험’ 17.6%(3명), ‘취업 및 창업’ 23.6%(4명), ‘사회적응능력 향상’ 17.6%(3명), ‘사회적 안정·소속감’ 11.8%(2명), ‘삶의 보람 및 성취감’ 17.6%(3명)로 나타났다.

[표 I -99]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훈련	2	11.8
취업현장의 체험	3	17.6
취업 및 창업	4	23.6
사회적응능력 향상	3	17.6
사회적 안정·소속감	2	11.8
삶의 보람 및 성취감	3	17.6
계	17	100.0

결측값 제외(N=1)

③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 17.6%(3명), ‘긴 대기기간’ 11.8%(2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7.6%(3명),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53.0%(9명)로 나타났다.

[표 I -100]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에 대한 부담	3	17.6
긴 대기기간	2	11.8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3	17.6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9	53.0
계	17	100.0

결측값 제외(N=10)

④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직업상담 및 평가’가 10.0%(3명), ‘직업 적응훈련’ 30.0%(9명), ‘자격증 취득교육’ 13.3%(4명), ‘직업훈련’ 30.0%(9명), ‘취업 알선 및 연계’ 16.7%(5명)로 나타났다.

[표 I -101]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직업상담 및 평가	3	10.0
직업적응훈련	9	30.0
자격증 취득교육	4	13.3
직업훈련	9	30.0
취업알선 및 연계	5	16.7
계	30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⑤ 희망하는 직종

희망하는 직종중의 응답 분포는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 40.0%(6명), ‘서비스직(식당, 카페 등)’ 20.0%(3명), ‘사무직’ 20.0%(3명), ‘제과제빵, 요리사 등’ 13.3%(2명), ‘요양보호사 등’ 6.7%(1명)로 나타났으며,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02] 희망하는 직종

구분	빈도(명)	비율(%)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	6	40.0
서비스직(식당, 카페 등)	3	20.0
사무직	3	20.0
제과제빵, 요리사 등	2	13.3
요양보호사 등	1	6.7
계	15	100.0

결측값 제외(N=3)

⑥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장애정도가 심해서’ 63.0%(17명),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22.2%(6명),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14.8%(4명)로 나타났다.

[표 I -103]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장애정도가 심해서	17	63.0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6	22.2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4	14.8
계	27	100.0

(5) 노인 영역별 욕구

(5-1)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2.2%(1명), ‘평생교육 프로그램’ 15.2%(7명), ‘케어서비스’ 19.6%(9명), ‘가족지원 프로그램’ 4.3%(2명),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8.7%(4명), ‘경제적 지원 서비스’ 43.5%(20명),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6.5%(3명)로 나타났다.

[표 I-104]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자립지원 프로그램	1	2.2
평생교육 프로그램	7	15.2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9	19.6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등)	2	4.3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4	8.7
경제적 지원 서비스	20	43.5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3	6.5
계	46	100.0

결측값 제외(N=4)

(5-2)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①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38.0%(19명), ‘아니요’가 62.0%(31명)로 나타났다.

[표 I-105]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9	38.0
아니요	31	62.0
계	50	100.0

②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29.4%(5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47.1%(8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23.5%(4명)로 나타났다.

[표 I -106]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5	29.4
1년 초과 5년 이하	8	47.1
5년 초과 10년 이하	4	23.5
계	17	100.0

결측값 제외(N=2)

③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여가시간 활용’ 47.9%(23명), ‘또래와의 어울림’ 6.3%(3명), ‘사회성 향상’ 6.3%(3명),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22.9%(11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8.3%(4명), ‘다양한 체험’ 8.3%(4명)로 나타났다.

[표 I -107]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여가시간 활용	23	47.9
또래와의 어울림	3	6.3
사회성 향상	3	6.3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11	22.9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4	8.3
다양한 체험	4	8.3
계	48	100.0

결측값 제외(N=2)

④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15.6%(15명), ‘프로그램 일정’ 6.3%(6명), ‘프로그램 내용’ 28.1%(27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7.3%(7명), ‘지원인력’ 16.7%(16명), ‘장애인 편의시설’ 18.8%(18명), ‘개별서비스’ 5.2%(5명), ‘그룹서비스’ 2.0%(2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08]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	15	15.6
프로그램 일정	6	6.3
프로그램 내용	27	28.1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7	7.3
지원인력	16	16.7
장애인 편의시설	18	18.8
개별서비스	5	5.2
그룹서비스	2	2.0
계	96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27.7%(26명), ‘문화 체험’ 18.1%(17명), ‘동아리활동’ 5.3%(5명), ‘나들이·여행’ 40.4%(38명), ‘스포츠 교실’ 1.1%(1명), ‘가족 프로그램’ 7.4%(7명)로 나타났으며 ‘나들이·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09]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취미교양(음악, 공예 등 취미생활)	26	27.7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등)	17	18.1
동아리활동(음악, 연극 등)	5	5.3
나들이·여행	38	40.4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요가 등)	1	1.1
가족 프로그램 (가족캠프, 형제자매프로그램 등)	7	7.4
계	94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5-3) 재가복지 서비스

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지원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지원처에 대해 물어봤을 때, ‘지원받지 않음’ 16.7%(8명), ‘활동지원사’ 20.8%(10명), ‘요양보호사’ 35.4%(17명), ‘가족, 친인척’ 25.0%(12명), ‘기타’ 2.1%(1명)로 나타났다.

[표 I -110]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지원처

구분	빈도(명)	비율(%)
지원받지 않음	8	16.7
활동지원사	10	20.8
요양보호사	17	35.4
가족, 친인척	12	25.0
기타	1	2.1
계	48	100.0

결측값 제외(N=2)

②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해 물어봤을 때, ‘경제지원’ 31.2%(29명), ‘일상생활지원’ 30.1%(28명), ‘정서지원’ 5.4%(5명), ‘주거지원’ 7.5%(7명), ‘건강지원’ 20.4%(19명), ‘문화여가지원’ 5.4%(5명),로 나타나 ‘경제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상생활지원’에 대해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다.

[표 I -111]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지원	29	31.2
일상생활지원	28	30.1
정서지원	5	5.4
주거지원	7	7.5
건강지원	19	20.4
문화여가지원	5	5.4
계	93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③ 희망하는 경제지원 서비스

희망하는 경제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생활비 지원’ 37.5%(18명), ‘의료비 지원’ 10.4%(5명), ‘식사, 반찬 지원’ 39.6%(19명), ‘생필품 지원’ 12.5%(6명)로 나타났다. 그 중 ‘식사, 반찬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12] 희망하는 경제지원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생활비 지원	18	37.5
의료비 지원	5	10.4
식사, 반찬 지원	19	39.6
생필품 지원	6	12.5
계	48	100.0

결측값 제외(N=2)

④ 희망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희망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가사 지원’ 41.6%(20명), ‘이미용 서비스’ 16.7%(8명), ‘외출 지원’ 14.6%(7명), ‘주거환경개선’ 16.7%(8명), ‘보장구 대여’ 10.4%(5명)로 나타났다. 그 중 ‘가사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13] 희망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가사 지원	20	41.6
이미용 서비스	8	16.7
외출 지원	7	14.6
주거환경개선	8	16.7
보장구 대여	5	10.4
계	48	100.0

결측값 제외(N=2)

⑤ 희망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희망하는 정서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전화상담’ 14.6%(7명), ‘방문상담’ 16.7%(8명), ‘나들이’ 52.1%(25명), ‘문화여가활동’ 12.5%(6명), ‘자조모임’ 4.1%(2명)로 나타났다. 그 중 ‘나들이’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14] 희망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전화상담	7	14.6
방문상담	8	16.7
나들이	25	52.1
문화여가활동	6	12.5
자조모임	2	4.1
계	48	100.0

결측값 제외(N=2)

⑥ 희망하는 건강지원 서비스

희망하는 건강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건강검진’이 52.1%(25명), ‘건강교육’ 6.3%(3명), ‘재활프로그램 지원’ 20.8%(11명), ‘체력단련실 운영’ 10.4%(5명), ‘혈압, 혈당 관리’ 8.4%(4명)로 나타났다. 그 중 ‘건강검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15] 희망하는 건강지원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건강검진	25	52.1
건강교육	3	6.3
재활프로그램 지원	11	20.8
체력단련실 운영	5	10.4
혈압, 혈당 관리	4	8.4
계	48	98.0

결측값 제외(N=2)

4) 건의사항

서술형으로 ‘남동구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물어본 결과, 여러 응답이 나왔으며 내용을 추려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련, 편의시설 관련,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관련 3가지로 분류하였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련(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의견 포함)

- 청소년 및 성인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대
- 일상생활 능력 및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자립생활 서비스, 취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의 다양성 희망
-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이나 대기 시간 등 개선을 위한 전문인력 보충 희망
-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요구
- 조기개입 프로그램 개설 희망

② 편의시설 관련(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의견 포함)

- 휠체어 이용 시 외부 도로상태의 불편함 호소
- 보호작업장 공간 협소

③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관련

-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지 필요
- 은행업무, 마트 등 간단한 동행을 함께 할 인력 확충 희망
-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마련 희망
- 특수학교 개설 확대 및 특수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정당성 요구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 개설 필요

④ 기타 의견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칭찬
- 이용시설 지속 유지 희망

요약 및 제언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요약 및 제언

1. 요약

2023년 9월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타 기관, 협회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6월 기준 남동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유형별 할당추출 후 2023년 6월 기준 복지관 연인원 유형별 할당추출 및 복지관 이용인원을 가중하여 조사 대상을 최종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350명에게 배포되었으며, 301명에게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2021 남동구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천 장애인종합복지관, 2022 이용인 욕구 및 만족도조사 보고서(2022)」, 「고양시지속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욕구조사 보고서(2022)」,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2022)」의 설문문항을 일부 반영하고 외부 자문을 통해 설문지를 복지관 상황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명목척도,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개인적 문제, 복지관 운영, 영역별 서비스 욕구(생애주기별), 건의사항 등 기관에서 파악하고자하는 욕구를 알기위해 각 부분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장애인과 관계에서는 본인 44.5%(134명), 가족 49.8%(150명), 전문지원인 5.0%(15명), 기타 0.7%(2명)로 조사되었다.

성별 분포는 ‘남자’ 56.1%(169명), 여자 43.9%(132명)로 조사되어 남자가 여자보다 12.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를 보면 0-9세 이하가 14.0%(42명), 10-19세 이하가 19.3%(58명), 20-29세 이하가 16.3%(49명), 30-39세 이하가 18.9%(57명), 40-49세 이하가 3.3%(10명), 50-59세 이하가 5.0%(15명), 60세 이상이 23.3%(70명)로 나타나 60세 이상 연령대가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10-19세, 30-39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는 30-39세 이하, 60세 이하 응답자가 각각 20.1%(34명), 여자는 60세 이상이 27.3%(36명)로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경제수준을 보면 수급자 39.9%(120명), 차상위 5.3%(16명), 비수급자(일반) 54.8%(165명)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미취학이 10.2%(28명), 초등학교 재학이 15.0%(41명), 초등학교 졸업이 12.0%(33명), 중학교 재학이 5.5%(15명), 중학교 졸업이 4.4%(12명), 고등학교 재학이 6.2%(17명), 고등학교 졸업이 43.4%(119명), 대학교 재학이 1.1%(3명), 기타가 2.2%(6명)로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대학원 수료 및 졸업이 있었다.

가족구성형태를 보면 1인가구(독거) 16.9%(50명), 부부 8.1%(24명), 부부+ 자녀 49.3%(146명), 한부모+ 자녀 15.5%(46명), 조부모+ 부부+ 손자녀 4.8%(14명), 조부모+ 손자녀 1.0%(3명), 형제 3.0%(9명)로 나타나 부부+ 자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기타의견으로는 ‘생활시설 거주’ 등이 있었다.

함께 사는 가족 수를 보면 1명 15.3%(45명), 2명 20.0%(59명), 3명 31.2%(92명), 4명 26.1%(77명), 5명 7.1%(21명), 7명 0.3%(1명)로 나타났다.

거주지를 살펴보면 인천시 남동구 82.7%(249명), 타 지역 17.3%(52명)으로 나타났다. 남동구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거주동을 살펴보면 간석동 9.2%(23명), 고잔동 0.8%(2명), 구월동 12.9%(32명), 남촌동 2.0%(5명), 논현동 9.2%(23명), 도림동 3.2%(8명), 만수동 49.0%(122명), 서창동 11.7%(29명), 장수동 2.0%(5명)로 나타나 복지관에 인접한 만수동 거주자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관련 특성 ■

주장애 유형으로는 지체장애 23.7%(71명), 시각장애 5.7%(17명), 뇌병변장애 10.0%(30명), 청각장애 6.7%(30명), 언어장애 4.0%(12명), 지적장애 23.4%(70명), 자폐성장애 14.7%(44명), 정신장애 7.4%(22명), 심장장애 0.3%(1명), 뇌전증장애 0.3%(1명), 미등록 3.8%(11명)로 나타나 지체장애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두 번째로 지적장애, 세 번째로 자폐성장애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지적장애 응답자가 20.8%(35명), 여성은 지체장애 응답자가 28.2%(37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남성은 지체장애 응답자가 20.2%(34명), 여성은 지적장애 응답자가 26.7%(35명)로 응답수가 가장 많았다.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에서 0~9세는 자폐성장애가 26.2%(11명)으로 가장 많았고,

10~19세는 자폐성장애 34.5%(20명), 20~29세는 지적장애 42.9%(21명), 30~39세는 지적장애 42.9%(24명), 40~49세는 지적장애 40.0%(4명), 50~59세는 정신장애 35.7%(5명), 60세 이상은 지체장애 52.8%(37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 분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82.4%(239명),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7.6%(51명)로 나타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지체장애가 23.8%(57명),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는 지체장애가 29.2%(14명)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2) 욕구조사결과

■ 개인적 문제 ■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1.3%(4명), ‘어렵지 않다.’ 7.6%(23명), ‘보통이다.’ 43.5%(131명), ‘어렵다.’ 27.9%(84명), ‘매우 어렵다.’ 19.7%(59명)로 나타났다.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2.7%(8명), ‘어렵지 않다.’ 8.6%(26명), ‘보통이다.’ 23.6%(71명), ‘어렵다.’ 33.2%(100명), ‘매우 어렵다.’ 31.9%(96명)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6.0%(18명), ‘어렵지 않다.’ 12.6%(38명), ‘보통이다.’ 33.2%(100명), ‘어렵다.’ 33.9%(102명), ‘매우 어렵다.’ 14.3%(43명)로 나타났다.

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6.3%(19명), ‘어렵지 않다.’ 7.0%(21명), ‘보통이다.’ 32.6%(98명), ‘어렵다.’ 35.5%(107명), ‘매우 어렵다.’ 18.6%(56명)로 나타났다.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5.0%(15명), ‘어렵지 않다.’ 10.6%(32명), ‘보통이다.’ 40.5%(122명), ‘어렵다.’ 27.2%(82명), ‘매우 어렵다.’ 16.7%(50명)로 나타났다.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7.3%(22명),

‘어렵지 않다.’ 11.6%(35명), ‘보통이다.’ 27.9%(84명), ‘어렵다.’ 33.3%(100명), ‘매우 어렵다.’ 19.9%(60명)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6.3%(19명), ‘어렵지 않다.’ 20.3%(61명), ‘보통이다.’ 37.5%(113명), ‘어렵다.’ 21.3%(64명), ‘매우 어렵다.’ 14.6%(44명)로 나타났다.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6.3%(19명), ‘어렵지 않다.’ 12.0%(36명), ‘보통이다.’ 35.5%(107명), ‘어렵다.’ 31.6%(95명), ‘매우 어렵다.’ 14.6%(44명)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6.0%(18명), ‘어렵지 않다.’ 10.3%(31명), ‘보통이다.’ 32.6%(98명), ‘어렵다.’ 30.9%(93명), ‘매우 어렵다.’ 20.2%(61명)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5.6%(17명), ‘어렵지 않다.’ 12.0%(36명), ‘보통이다.’ 35.2%(106명), ‘어렵다.’ 29.9%(90명), ‘매우 어렵다.’ 17.3%(52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5.0%(15명), ‘어렵지 않다.’ 11.0%(33명), ‘보통이다.’ 30.2%(91명), ‘어렵다.’ 33.9%(102명), ‘매우 어렵다.’ 19.9%(60명)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중 가장 어려운 1순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30.0%(82명)로 가장 많았고, 2순위에서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15.7%(42명)로 가장 많았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에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지 물었을 때 ‘스스로 해결’이 14.6%(44명), ‘가족 내에서 해결’ 56.8%(171명), ‘행정복지센터·복지기관 등에 도움 요청’ 17.3%(52명), ‘인터넷 등 정보망 이용’ 4.3%(13명), ‘친구·이웃·종교 등에 도움 요청’이 4.4%(13명), ‘공교육기관(학교 등)에 도움 요청’이 1.0%(3명), ‘기타’가 1.7%(5명)로 나타나 ‘가족에게 도움 요청’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병원, 요양보호사 등의 응답이 있었다.

■ 복지관 운영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유무에 대해 물었을 때, ‘예’ 86.4%(260명), ‘아니요’ 13.6%(41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80%이상이 복지관을 이용해왔다고 응답하였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기간에 대해 물었을 때, ‘1년 이하’ 14.6%(37명), ‘1년 초과~5년 이하’ 26.4%(67명), ‘5년 초과 10년 이하’ 38.6%(98명), ‘10년 초과’ 20.4%(52명)로, 5년 초과~10년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 물었을 때, ‘지나가다 우연히’ 6.5%(16명),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 16.3%(40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2.0%(5명), ‘인터넷(홈페이지)’ 11.7%(29명), ‘이웃의 소개나 권유로’ 46.3%(114명),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서’ 17.2%(42명)로 나타났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복지관이 있는지 잘 몰라서’ 13.9%(5명), ‘거리가 너무 멀어서’ 22.2%(8명), ‘집안일이나 외부활동에 바빠서’ 8.3%(3명), ‘건강상 거동이 불편해서’ 27.8%(10명), ‘교통이 불편해서’ 11.1%(4명), ‘이용할 프로그램이 없어서’ 16.7%(6명)로 나타났다.

복지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 물었을 때, ‘이동의 편리성(교통)’ 23.1%(69명), ‘프로그램의 다양성’ 33.4%(100명), ‘이용료’ 10.7%(32명), ‘이용 대기기간’ 2.7%(8명), ‘직원의 친절성’ 10.0%(30명),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전문성’ 20.1%(60명)로 나타났다.

■ 영역별 욕구(아동) ■

장애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물어본 결과 ‘조기개입 프로그램’ 29.9%(20명), ‘기초학습능력 향상프로그램’ 17.9%(12명), ‘다영역 협력 프로그램’ 6.0%(4명), ‘방과후 프로그램’ 10.4%(7명), ‘또래관계 형성 프로그램’ 25.4%(17명), ‘신체기능 프로그램’ 10.4%(7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14.9%(10명), ‘아니요’가 85.1%(57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0명 모두 ‘1년 이하’로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여가시간 활용’ 7.5%(5명), ‘또래와의 어울림’ 32.8%(22명), ‘사회성 향상’ 20.9%(14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7.5%(5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11.9%(8명), ‘특기적성 개발’ 3.0%(2명), ‘다양한 체험’ 16.4%(11명)로 ‘또래와의 어울림’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13.9%(17명), ‘프로그램 일정’ 17.2%(21명), ‘프로그램 내용’ 34.4%(42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8.9%(23명), ‘지원인력’ 5.7%(7명), ‘장애인 편의시설’ 3.3%(4명), ‘개별서비스’ 4.9%(6명), ‘그룹서비스’ 1.7%(2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19.5%(24명), ‘문화 체험’ 13.0%(16명), ‘동아리활동’ 15.4%(19명), ‘나들이·여행’ 18.8%(23명), ‘스포츠 교실’ 13.0%(16명), ‘가족 프로그램’ 20.3%(25명)로 나타났으며 ‘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52.2%(35명), ‘아니요’가 47.8%(32명)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3년 미만’가 40.0%(14명), ‘3년 이상’이 60.0%(35명)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34.3%(23명), ‘사회성 향상’ 17.9%(12명), ‘특기적성 개발’ 6.0%(4명), ‘학습능력 향상’ 9.0%(6명), ‘다양한 체험’ 7.5%(5명), ‘자립능력 향상’ 9.0%(6명), ‘의사소통기능 향상’ 16.3%(11명)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1.7%(19명), ‘프로그램 일정’ 17.8%(23명), ‘프로그램 내용’ 40.3%(52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9.4%(25명), ‘지원인력’ 1.6%(2명), ‘장애인 편의시설’ 1.6%(2명), ‘개별서비스’ 3.9%(5명), ‘그룹서비스’ 0.7%(1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일상생활훈련’이 35.7%(46명),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5.5%(20명), ‘사회적응 프로그램’ 30.2%(39명), ‘학업보충 프로그램’ 3.9%(5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10.1%(13명), 인권, 권익옹호교육 1.5%(2명)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역별 욕구(청소년) ■

장애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립준비 프로그램’ 12.5%(4명), ‘자기결정훈련 프로그램’ 9.4%(3명),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28.1%(9명), ‘방과후 프로그램’ 15.6%(5명), ‘또래관계 형성 프로그램’ 28.1%(9명), ‘방학기간 프로그램’ 6.3%(2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72.7%(24명), ‘아니요’가 27.3%(9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47.8%(11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39.1%(9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13.1%(3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물어본 결과 ‘또래와의 어울림’ 33.3%(11명), ‘사회성 향상’ 33.3%(11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9.2%(3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12.1%(4명), ‘다양한 체험’ 12.1%(4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6.0%(4명), ‘프로그램 일정’ 17.9%(12명), ‘프로그램 내용’ 41.8%(28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3.4%(9명), ‘지원인력’ 9.0%(6명), ‘그룹서비스’ 11.9%(8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19.4%(12명), ‘문화 체험’ 19.4%(12명), ‘동아리활동’ 11.3%(7명), ‘나들이·여행’ 16.1%(10명), ‘스포츠 교실’ 24.2%(15명), ‘가족 프로그램’ 9.6%(6명)로 나타났으며 ‘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54.5%(18명), ‘아니요’가 45.5%(15명)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3년 미만’가 41.2%(7명), ‘3년 이상’이 58.8%(10명)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36.4%(12명), ‘사회성 향상’ 12.1%(4명), ‘특기적성 개발’ 3.0%(1명), ‘학습능력 향상’ 18.2%(6명), ‘다양한 체험’ 9.1%(3명), ‘자립능력 향상’ 12.1%(4명), ‘의사소통기능 향상’ 9.1%(3명)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9.5%(6명), ‘프로그램 일정’ 26.9%(17명), ‘프로그램 내용’ 41.3%(26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7.5%(11명), ‘지원인력’ 1.6%(1명), ‘장애인 편의시설’ 1.6%(1명), ‘그룹서비스’ 1.6%(1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일상생활훈련’이 14.1%(9명),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29.7%(19명), ‘사회적응 프로그램’ 37.5%(24명), ‘학업보충 프로그램’ 4.7%(3명), ‘안전 및 건강교육’ 4.7%(3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9.6%(6명)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취업 의사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72.7%(24명),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이 27.3%(9명)로 나타나 응답자 중 2/3 이상이 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에 대해 물었을 때, ‘일상생활훈련’이 8.3%(2명), ‘취업 현장의 체험’ 8.3%(2명), ‘직업능력 향상’ 16.7%(4명), ‘취업 및 창업’ 4.2%(1명), ‘사회적응능력 향상’ 37.5%(9명), ‘사회적 안정·소속감’ 16.7%(4명), ‘삶의 보람 및 성취감’ 8.3%(2명)로 나타나 ‘사회적응능력 향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 4.2%(1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8.3%(2명), ‘긴 대기기간’ 29.2%(7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33.3%(8명),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16.7%(4명),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8.3%(2명)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직업상담 및 평가’가 8.7%(4명), ‘직업적응훈련’ 37.0%(17명), ‘자격증 취득교육’ 10.9%(5명), ‘직업훈련’ 39.1%(18명), ‘취업알선 및 연계’ 4.3%(2명)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직종의 응답 분포는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 20.8%(5명), ‘물류서비스(택배 등)’ 12.5%(3명), ‘서비스직(식당, 카페 등)’ 37.5%(9명), ‘사무직’ 8.3%(2명), ‘제과제빵, 요리사 등’ 16.7%(4명), ‘요양보호사 등’ 4.2%(1명)로 나타났으며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장애정도가 심해서’ 88.9%(8명),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11.1%(1명)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자립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가 54.5%(18명), '아니요'가 45.5%(15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립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일상생활'이 33.3%(6명), '경제적 어려움' 16.7%(3명), '사회적 관계' 38.8%(7명),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5.6%(1명), '응급상황 대처' 5.6%(1명)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경제적 지원' 25.7%(9명), '직업 재활, 취업 지원' 31.4%(11명), '주거 지원' 2.9%(1명), '일상생활 활동 지원' 34.3%(12명), '활동지원사, 가사도우미 지원' 5.7%(2명)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활동 지원 및 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직업재활, 취업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 73.3%(11명),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20.0%(3명), '기타' 6.7%(1명)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 영역별 욕구(청년) ■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22.3%(23명),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28.2%(29명), '평생교육 프로그램' 25.2%(26명),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8.7%(9명), '케어서비스' 3.9%(4명), '가족지원 프로그램' 1.0%(1명),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1.9%(2명), '경제적 지원 서비스' 6.9%(7명),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1.9%(2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56.6%(60명), '아니요'가 43.4%(46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20.0%(10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38.0%(19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42.0%(21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여가시간 활용' 15.1%(16명), '또래와의 어울림' 15.1%(16명), '사회성 향상' 24.5%(26명),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23.6%(25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5.7%(6명), '특기적성 개발'

0.9%(1명), ‘다양한 체험’ 15.1%(16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9.3%(18명), ‘프로그램 일정’ 26.9%(52명), ‘프로그램 내용’ 34.7%(67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8.8%(17명), ‘지원인력’ 8.8%(17명), ‘장애인 편의시설’ 6.8%(13명), ‘개별서비스’ 2.1%(4명), ‘그룹서비스’ 2.6%(5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21.4%(42명), ‘문화 체험’ 20.9%(41명), ‘동아리활동’ 13.3%(26명), ‘나들이·여행’ 27.0%(53명), ‘스포츠 교실’ 12.3%(24명), ‘가족 프로그램’ 9.6%(10명)로 나타났으며 ‘나들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49.1%(52명), ‘아니요’가 50.9%(54명)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3년 미만’가 47.5%(19명), ‘3년 이상’이 52.5%(21명)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27.4%(29명), ‘사회성 향상’ 25.5%(27명), ‘특기적성 개발’ 6.6%(7명), ‘학습능력 향상’ 3.8%(4명), ‘다양한 체험’ 17.0%(18명), ‘자립능력 향상’ 12.3%(13명), ‘의사소통기능 향상’ 7.4%(8명)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10.9%(21명), ‘프로그램 일정’ 24.4%(47명), ‘프로그램 내용’ 36.3%(70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3.0%(25명), ‘지원인력’ 5.7%(11명), ‘장애인 편의시설’ 5.7%(11명), ‘개별서비스’ 2.5%(5명), ‘그룹서비스’ 1.5%(3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일상생활훈련’이 23.7%(45명),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8.4%(35명), ‘사회적응 프로그램’ 26.3%(50명), ‘직업 및 적성개발 교육’ 19.5%(37명), ‘안전 및 건강교육’ 3.2%(6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8.9%(17명)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일상생활훈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취업 의사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73.6%(78명),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이 26.4%(28명)로 나타나 응답자 중 2/3 이상이 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에 대해 물었을 때, ‘일상생활훈련’이 16.7%(13명), ‘취업현장의 체험’ 17.9%(14명), ‘직업능력 향상’ 10.3%(8명), ‘취업 및 창업’ 19.2%(15명), ‘사회적응능력 향상’ 22.5%(16명), ‘사회적 안정·소속감’ 3.8%(3명), ‘삶의 보람 및 성취감’ 11.6%(9명)로 나타나 ‘사회적응능력 향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 6.4%(5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0.3%(8명), ‘긴 대기기간’ 12.8%(10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7.9%(14명),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11.5%(9명),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38.5%(30명), ‘기타’ 2.6%(2명)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직업상담 및 평가’가 4.2%(6명), ‘직업적응훈련’ 35.2%(50명), ‘자격증 취득교육’ 10.6%(15명), ‘직업훈련’ 25.4%(36명), ‘취업알선 및 연계’ 23.9%(34명), ‘기타’ 0.7%(1명)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종의 응답 분포는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 30.1%(22명), ‘물류서비스(택배 등)’ 2.7%(2명), ‘서비스직(식당, 카페 등)’ 24.7%(18명), ‘사무직’ 9.6%(7명), ‘제과제빵, 요리사 등’ 23.3%(17명), ‘미용, 피부관리사 등’ 2.7%(2명), ‘요양보호사 등’ 2.7%(2명), ‘청소서비스직’ 4.2%(3명)로 나타났으며,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장애정도가 심해서’ 64.3%(18명),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10.7%(3명),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10.7%(3명),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14.3%(4명)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자립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가 55.7%(59명), ‘아니요’가 44.3%(47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립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일상생활’이 3.5%(18명), ‘경제적 어려움’ 13.6%(8명), ‘사회적 관계’ 18.6%(11명),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10.2%(6명), ‘응급상황 대처’ 15.3%(9명), ‘기타’ 1.6%(1명)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경제적 지원’ 22.6%(24명), ‘건강

관리' 7.5%(8명), '직업재활, 취업 지원' 18.9%(20명), '주거 지원' 7.5%(8명), '일상생활 활동 지원' 25.6%(27명), '활동지원사, 가사도우미 지원' 17.0%(18명), '정서지원' 0.9%(1명)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활동 지원 및 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 48.9%(23명),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2.1%(1명),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44.7%(21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3%(2명)로 나타났다.

■ 영역별 욕구(중장년) ■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15.6%(7명),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11.1%(5명), '평생교육 프로그램' 33.3%(15명),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8.9%(4명), '케어서비스' 6.7%(3명), '가족지원 프로그램' 2.2%(1명),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2.2%(1명), '경제적 지원 서비스' 6.7%(3명),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13.3%(6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77.8%(35명), '아니요'가 22.2%(10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15.4%(4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30.8%(8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53.8%(14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여가시간 활용' 46.7%(21명), '또래와의 어울림' 4.4%(2명), '사회성 향상' 6.7%(3명),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20.0%(9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4.4%(2명), '다양한 체험' 17.8%(8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18.3%(15명), '프로그램 일정' 18.3%(15명), '프로그램 내용' 37.8%(31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5.9%(13명), '지원인력' 2.4%(2명), '장애인 편의시설' 2.4%(2명), '개별서비스' 3.7%(3명), '그룹서비스' 1.2%(1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33.8%(27명), '문화 체험' 20.0%(16명), '동아리활동' 12.5%(10명), '나들이·여행' 21.3%(17명), '스포츠 교실' 8.7%(7명), '가족 프로그램' 3.7%(3명)로 나타났으며 '취미교양'에 대한 욕구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26.7%(12명), ‘아니요’가 73.3%(33명)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3년 미만’이 41.7%(5명), ‘3년 이상’이 58.3(7명)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22.2%(10명), ‘사회성 향상’ 8.9%(4명), ‘특기적성 개발’ 2.2%(1명), ‘학습능력 향상’ 2.2%(1명), ‘다양한 체험’ 51.2%(23명), ‘자립능력 향상’ 4.4%(2명), ‘의사소통기능 향상’ 8.9%(4명)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18.1%(15명), ‘프로그램 일정’ 27.7%(23명), ‘프로그램 내용’ 31.3%(26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15.7%(13명), ‘장애인 편의시설’ 3.6%(3명), ‘개별서비스’ 3.6%(3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일상생활훈련’이 20.3%(16명),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1.4%(9명), ‘사회적응 프로그램’ 16.5%(13명), ‘직업 및 적성개발 교육’ 17.7%(14명), ‘안전 및 건강교육’ 11.4%(9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13.9%(11명), ‘인권, 권익옹호교육’ 8.8%(7명)로 나타났다.

향후 취업 의사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40.0%(18명),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이 60.0%(27명)로 나타났다.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에 대해 물었을 때, ‘일상생활훈련’이 11.8%(2명), ‘취업 현장의 체험’ 17.6%(3명), ‘취업 및 창업’ 23.6%(4명), ‘사회적응능력 향상’ 17.6%(3명), ‘사회적 안정·소속감’ 11.8%(2명), ‘삶의 보람 및 성취감’ 17.6%(3명)로 나타났다.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 17.6%(3명), ‘긴 대기기간’ 11.8%(2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7.6%(3명),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53.0%(9명)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직업상담 및 평가’가 10.0%(3명), ‘직업

적응훈련' 30.0%(9명), '자격증 취득교육' 13.3%(4명), '직업훈련' 30.0%(9명), '취업
알선 및 연계' 16.7%(5명)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직종의 응답 분포는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 40.0%(6명), '서비스직(식당, 카페 등)' 20.0%(3명), '사무직' 20.0%(3명), '제과제빵, 요리사 등' 13.3%(2명), '요양보호사 등' 6.7%(1명)로 나타났으며,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장애정도가 심해서' 63.0%(17명),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22.2%(6명),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14.8%(4명)로 나타났다.

■ 영역별 욕구(노인) ■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2.2%(1명), '평생교육 프로그램' 15.2%(7명), '케어서비스' 19.6%(9명), '가족지원 프로그램' 4.3%(2명),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8.7%(4명), '경제적 지원 서비스' 43.5%(20명),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6.5%(3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38.0%(19명), '아니요'가 62.0%(31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29.4%(5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47.1%(8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23.5%(4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여가시간 활용' 47.9%(23명), '또래와의 어울림' 6.3%(3명), '사회성 향상' 6.3%(3명),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22.9%(11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8.3%(4명), '다양한 체험' 8.3%(4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 15.6%(15명), '프로그램 일정' 6.3%(6명), '프로그램 내용' 28.1%(27명),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7.3%(7명), '지원인력' 16.7%(16명), '장애인 편의시설' 18.8%(18명), '개별서비스' 5.2%(5명), '그룹서비스' 2.0%(2명)로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27.7%(26명), '문화

체험' 18.1%(17명), '동아리활동' 5.3%(5명), '나들이·여행' 40.4%(38명), '스포츠 교실' 1.1%(1명), '가족 프로그램' 7.4%(7명)로 나타났으며 '나들이·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지원처에 대해 물어봤을 때, '지원받지 않음' 16.7%(8명), '활동지원사' 20.8%(10명), '요양보호사' 35.4%(17명), '가족, 친인척' 25.0%(12명), '기타' 2.1%(1명)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경제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생활비 지원' 37.5%(18명), '의료비 지원' 10.4%(5명), '식사, 반찬 지원' 39.6%(19명), '생필품 지원' 12.5%(6명)로 나타났다. 그 중 '식사, 반찬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가사 지원' 41.6%(20명), '이미용 서비스' 16.7%(8명), '외출 지원' 14.6%(7명), '주거환경개선' 16.7%(8명), '보장구 대여' 10.4%(5명)로 나타났다. 그 중 '가사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정서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전화상담' 14.6%(7명), '방문상담' 16.7%(8명), '나들이' 52.1%(25명), '문화여가활동' 12.5%(6명), '자조모임' 4.1%(2명)로 나타났다. 그 중 '나들이'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건강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건강검진'이 52.1%(25명), '건강교육' 6.3%(3명), '재활프로그램 지원' 20.8%(11명), '체력단련실 운영' 10.4%(5명), '혈압, 혈당 관리' 8.4%(4명)로 나타났다. 그 중 '건강검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설문조사는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지역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에 원하는 욕구에서 나아가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서비스의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복지관의 향후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3가지의 결론을 유추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자립지원 서비스 확대 및 환경 조성

자립 희망 및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해 물었을 때, 청소년 54.5%(18명), 청년 55.7%(59명) 등 절반 이상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또한, 남동구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해달라는 질문에 ‘자립생활 서비스의 다양성 희망’,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 개설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개인이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형태(고용·주거·재활 서비스, 직업교육 및 훈련, 법률 지원 등)의 자립 서비스를 연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적,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일상생활 속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1순위 경제적 어려움이 30.0%(82명), 2순위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15.7%(42명)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가 28.2%(29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장애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물어본 결과 ‘경제적 지원 서비스’ 43.5%(20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재가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보장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먼저 기관에서 사회적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식개선캠페인 및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포용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설치, 교통 접근성 향상, 보조기기 보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 응모, 정부에 의견 제출 등의 적극적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동구 장애인의 영역별 욕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근거 제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영역별로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해 물었으며, 다음 결과는 각 희망하는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응답을 생애주기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구분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아동	가족 프로그램, 취미교양
청소년	스포츠교실, 취미교양
청년	나들이·여행, 취미교양
중장년	나들이·여행, 취미교양
노인	나들이·여행, 취미교양

■ 교육 서비스

구분	교육 서비스
아동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프로그램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청년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프로그램
중장년	일상생활훈련, 직업 및 적성개발 교육

■ 직업재활 서비스

구분	직업재활 서비스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청소년	직업적응훈련	서비스직
청년	직업적응훈련	서비스직
중장년	직업훈련	단순조립, 포장

■ 자립지원 서비스

구분	자립지원 서비스
청소년	일상생활 활동 지원 및 훈련
청년	일상생활 활동 지원 및 훈련

■ 재가복지 서비스(노인)

- 경제지원 : 식사, 반찬 지원
- 일상생활지원 : 가사 지원
- 정서지원 : 나들이
- 건강지원 : 건강검진

이처럼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남동구 장애인의 욕구를 광의적 의미를 넘어 협의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교육 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 자립지원 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에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2023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설문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설문지ID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남동구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안녕하세요?

귀하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희 남동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재활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장애인들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지역 장애인의 문제점과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는 복지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쓰여 질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익명으로 실시되며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되며, 통계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9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설문 응답자에게는 장바구니가 제공되오니 응답을 완료하시고,
설문지를 배부받은 담당자에게 장바구니를 수령해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연정 사회복지사 ☎ 032-472-0054)

I. 다음은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세요.

* 만일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하여 응답할 때, **장애인 당사자를 기준**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1.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자와의 관계	__① 본인(당사자) __②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 친척 등)		
	__③ 전문지원인 __④ 기타(아웃, 친구, 개별적 관계 등)		
성 별	__① 남자 __② 여자	나 이	_____세
경 제 수 준	__① 기초생활수급자 __② 차상위 __③ 일반		
학 력	__① 미취학 __② 초등학교 재학 __③ 초등학교 졸업 __④ 중학교 재학 __⑤ 중학교 졸업 __⑥ 고등학교 재학 __⑦ 고등학교 졸업 __⑧ 대학교 재학 __⑨ 대학교 졸업 __⑩ 기타()		
가족구성 형태 (본인을 중심으로)	__① 1인가구(독거) __② 부부 __③ 부부+자녀 __④ 한부모+자녀 __⑤ 조부모+부부+손자녀 __⑥ 조부모+손자녀 __⑦ 형제(남매, 자매) __⑧ 기타()		
함께 사는 가족 수 (본인 포함)	_____명	거 주 지	① 인천시 남동구 ② 타 지역
남동구 거주동 (남동구 거주자만 응답)	__① 간석동 __② 고잔동 __③ 구월동 __④ 남촌동 __⑤ 논현동 __⑥ 도림동 __⑦ 만수동 __⑧ 서창동 __⑨ 수산동 __⑩ 운연동 __⑪ 장수동		

2. 다음은 귀하의 장애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장애 유형	__① 지체장애	__② 시각장애	__③ 뇌병변장애
	__④ 청각장애	__⑤ 언어장애	__⑥ 지적장애
	__⑦ 자폐성장애	__⑧ 정신장애	__⑨ 신장장애
	__⑩ 심장장애	__⑪ 호흡기장애	__⑫ 간장애
	__⑬ 뇌전증장애	__⑭ 안면장애	__⑮ 장루·요루장애
	__⑯ 미등록		
장 애 정 도	__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1~3급)		
	__②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4~6급)		

Ⅱ. 다음은 귀하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1. 다음은 귀하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겪고 계신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지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 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취업의 어려움					
③ 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					
④ 교육의 어려움					
⑤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					
⑥ 가족부양,양육의 어려움					
⑦ 가족관계의 어려움					
⑧ 심리적 어려움					
⑨ 대인관계의 어려움					
⑩ 일상생활의 어려움					
⑪ 문화·여가생활의 어려움					

2. 위의 어려움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 되는 것 **1, 2순위**를 번호로 적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에 주로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__① 스스로 해결

__② 가족 내에서 해결

__③ 행정복지센터·복지기관 등에 도움 요청

__④ 인터넷 등 정보망 이용

__⑤ 친구, 지역단체(종교단체, 봉사단체 등)에 도움 요청

__⑥ 공교육기관(학교 등)에 도움 요청

__⑦ 기타 ()

Ⅲ. 다음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1.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__① 예

__② 아니요 (☞2번으로)

1-1.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1-2.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__① 지나가다 우연히

__②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

__③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__④ 인터넷(홈페이지)

__⑤ 이웃의 소개나 권유로

__⑥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서

__⑦ 기타()

2.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②아니요로 응답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__① 복지관이 있는지 잘 몰라서

__② 거리가 너무 멀어서

__③ 집안일이나 외부활동에 바빠서

__④ 복지관 서비스 질이 안 좋아서

__⑤ 건강상 거동이 불편해서

__⑥ 이용료가 비싸서

__⑦ 교통이 불편해서

__⑧ 이용할 프로그램이 없어서

__⑨ 이용대기가 길어서

__⑩ 기타()

3. 복지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__① 이동의 편리성(교통)

__② 프로그램의 다양성

__③ 이용료

__④ 이용 대기기간

__⑤ 직원의 친절성

__⑥ 편의시설 확충

__⑦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전문성

__⑧ 기타()

*** 다음부터는 해당 장애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영역을 선택한 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아동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 5p ② 청소년 (13세~18세 이하-고등학생 이하) - 8p
- ③ 청년 (19세~38세 이하) - 13p ④ 중장년 (39세~64세 이하) - 18p
- ⑤ 노인 (65세 이상) - 22p

장애 아동(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에 해당하는 분만 작성바랍니다.

1. 장애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조기개입 프로그램 | ☐ ② 기초학습능력 향상프로그램 |
| ☐ ③ 다영역 협력 프로그램 | ☐ ④ 방과후 프로그램 |
| ☐ ⑤ 또래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 ⑥ 신체기능 프로그램 |
| ☐ ⑦ 가족지원 프로그램 | ☐ ⑧ 기타() |

※ 다음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 ① 예 | ☐ ② 아니요 (☞3번으로) |
|------------------------------|--|

2-1.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3.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여가시간 활용 | ☐ ② 또래와의 어울림 |
| ☐ ③ 사회성 향상 | ☐ ④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
| ☐ ⑤ 보호자(가족 등)의 돌봄 부담 완화 | ☐ ⑥ 특기적성 개발 |
| ☐ ⑦ 다양한 체험 | ☐ ⑧ 기타() |

4.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두가지 선택)

- | | | |
|---|--|-------------------------------------|
| ☐ ① 이용료 | ☐ ② 프로그램 일정 | ☐ ③ 프로그램 내용 |
| ☐ ④ 강사, 담당자의 전문성 | ☐ ⑤ 지원인력(자원봉사자 등) | ☐ ⑥ 장애인 편의시설 |
| ☐ ⑦ 개별서비스 | ☐ ⑧ 그룹서비스 | ☐ ⑨ 기타() |

5.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두가지 선택)

- __① 취미교양(음악, 공예, 요리 등 취미생활 관련)
- __②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스포츠 경기 관람 등)
- __③ 동아리활동(음악, 뮤지컬, 연극 등)
- __④ 나들이·여행
- __⑤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볼링, 요가 등)
- __⑥ 가족 프로그램(가족캠프, 형제자매 프로그램 등)
- __⑦ 기타()

※ 다음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6.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7번으로)

6-1.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7.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__① 일상생활능력 향상 __② 사회성 향상

__③ 특기적성 개발 __④ 학습능력 향상

__⑤ 학업성적 향상 __⑥ 다양한 체험

__⑦ 자립능력 향상 __⑧ 의사소통기능 향상

__⑨ 기타()

8.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두가지 선택)**

- __① 이용료 __② 프로그램 일정 __③ 프로그램 내용
 __④ 강사, 담당자의 전문성 __⑤ 지원인력(자원봉사자 등) __⑥ 장애인 편의시설
 __⑦ 개별서비스 __⑧ 그룹서비스 __⑨ 기타()

9.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두가지 선택)

- | | |
|--------------------------|--------------------------|
| __① 일상생활훈련 | __②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
| __③ 사회적응 프로그램(지역사회시설 이용) | __④ 학업보충 프로그램 |
| __⑤ 안전 및 건강교육 | __⑥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예술·체육 등) |
| __⑦ 인권, 권익옹호교육 | __⑧ 기타() |

10. 남동구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설문 응답자에게는 장바구니가 제공되오니 응답을 완료하시고,
설문지를 배부받은 담당자에게 장바구니를 수령해가시기 바랍니다.

장애 청소년(13~18세 이하·고등학생 이하)에 해당하는 분만 작성바랍니다.

1. 장애청소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자립준비 프로그램 | ☐ ② 자기결정훈련 프로그램 |
| ☐ ③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 ④ 방과후 프로그램 |
| ☐ ⑤ 또래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 ⑥ 신체기능 프로그램 |
| ☐ ⑦ 가족지원 프로그램 | ☐ ⑧ 방학기간 프로그램 |
| ☐ ⑨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 ☐ ⑩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
| ☐ ⑪ 기타() | |

※ 다음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 ① 예 | ☐ ② 아니요 (☞ 3번으로) |
|------------------------------|---|

2-1.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3.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여가시간 활용 | ☐ ② 또래와의 어울림 |
| ☐ ③ 사회성 향상 | ☐ ④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
| ☐ ⑤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 ☐ ⑥ 특기적성 개발 |
| ☐ ⑦ 다양한 체험 | ☐ ⑧ 기타() |

4.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두가지 선택)

- | | | |
|---|--|-------------------------------------|
| ☐ ① 이용료 | ☐ ② 프로그램 일정 | ☐ ③ 프로그램 내용 |
| ☐ ④ 강사, 담당자의 전문성 | ☐ ⑤ 지원인력(자원봉사자 등) | ☐ ⑥ 장애인 편의시설 |
| ☐ ⑦ 개별서비스 | ☐ ⑧ 그룹서비스 | ☐ ⑨ 기타() |

__① 취미교양(음악, 공예, 요리 등 취미생활 관련)
__②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스포츠 경기 관람 등)
__③ 동아리활동(음악, 뮤지컬, 연극 등)
__④ 나들이·여행
__⑤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볼링, 요가 등)
__⑥ 가족 프로그램(가족캠프, 형제자매 프로그램 등)
__⑦ 기타()

 ① 예 ② 아니요 (7번으로)

년 개월

__① 일상생활능력 향상
 __② 사회성 향상
 __③ 특기적성 개발
 __④ 학습능력 향상
 __⑤ 학업성적 향상
 __⑥ 다양한 체험
 __⑦ 자립능력 향상
 __⑧ 의사소통기능 향상
 __⑨ 기타()

__① 이용료 __② 프로그램 일정 __③ 프로그램 내용
 __④ 강사, 담당자의 전문성 __⑤ 지원인력(자원봉사자 등) __⑥ 장애인 편의시설
 __⑦ 개별서비스 __⑧ 그룹서비스 __⑨ 기타()

9.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두가지 선택)

- | | |
|--------------------------|--------------------------|
| __① 일상생활훈련 | __②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
| __③ 사회적응 프로그램(지역사회시설 이용) | __④ 학업보충 프로그램 |
| __⑤ 안전 및 건강교육 | __⑥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예술·체육 등) |
| __⑦ 인권, 권익옹호교육 | __⑧ 기타() |

※ 다음은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앞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 | | |
|-------|------------------|
| __① 예 | __② 아니요 (☞15번으로) |
|-------|------------------|

11. 귀하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 | |
|-----------------|----------------|
| __① 일상생활훈련 | __② 취업현장의 체험 |
| __③ 직업능력 향상 | __④ 취업 및 창업 |
| __⑤ 사회적응능력 향상 | __⑥ 사회적 안정·소속감 |
| __⑦ 삶의 보람 및 성취감 | __⑧ 기타() |

12. 귀하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 |
|------------------|----------------------|
| __① 이용료에 대한 부담 | __②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
| __③ 긴 대기기간 | __④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
| __⑤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 __⑥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
| __⑦ 기타() | |

13. 귀하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두가지 선택)

- | | | |
|---------------|---------------|--------------|
| __① 직업상담 및 평가 | __② 직업적응훈련 | __③ 자격증 취득교육 |
| __④ 직업훈련 | __⑤ 취업알선 및 연계 | __⑥ 기타() |

14. 귀하가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직종은 무엇입니까?

- | | |
|----------------------|-----------------|
| __①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 | __② 물류서비스(택배 등) |
| __③ 서비스직(식당, 카페 등) | __④ 사무직 |
| __⑤ 제과제빵, 요리사 등 | __⑥ 미용, 피부관리사 등 |
| __⑦ 요양보호사 등 | __⑧ 청소서비스직 |
| __⑨ 기타() | |

15.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번, ②아니요로 응답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 | | |
|------------------|----------------------------|
| __① 장애정도가 심해서 | __②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
| __③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__④ 급여가 낮을 것 같아서 |
| __⑤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 __⑥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까봐(수급탈락 등) |
| __⑦ 기타() | |

※ 다음은 **자립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6. 현재 자립하고 있거나, 앞으로 자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 | | |
|-------|------------------|
| __① 예 | __② 아니요 (☞19번으로) |
|-------|------------------|

17. 귀하가 자립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__① 일상생활(청소, 식사, 이동 등) | __② 경제적 어려움 |
| __③ 건강관리 | __④ 사회적 관계(이웃 등) |
| __⑤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 __⑥ 응급상황 대처 |
| __⑦ 기타() | |

18. 귀하가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두가지 선택)

☐ ① 경제적 지원	☐ ② 건강관리
☐ ③ 직업재활, 취업 지원	☐ ④ 주거 지원
☐ ⑤ 일상생활 활동 지원 및 훈련	☐ ⑥ 활동지원사, 가사도우미 지원
☐ ⑦ 정서지원	☐ ⑧ 기타()

19.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번, ②아니요로 응답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 ①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서	☐ ②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③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 ④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⑤ 기타()	

20. 남동구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설문 응답자에게는 장바구니가 제공되오니 응답을 완료하시고,
설문지를 배부받은 담당자에게 장바구니를 수령해가시기 바랍니다.

장애 청년(19~38세 이하)에 해당하는 분만 작성바랍니다.

1. 장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자립지원 프로그램 | ☐ ②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
| ☐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 | ☐ ④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 ☐ ⑤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 ☐ ⑥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등) |
| ☐ ⑦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 ☐ ⑧ 경제적 지원 서비스 |
| ☐ ⑨ 후견지원 사업 | ☐ ⑩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
| ☐ ⑪ 기타() | |

※ 다음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 ① 예 | ☐ ② 아니요 (☞ 3번으로) |
|------------------------------|---|

2-1.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3.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여가시간 활용 | ☐ ② 또래와의 어울림 |
| ☐ ③ 사회성 향상 | ☐ ④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
| ☐ ⑤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 ☐ ⑥ 특기적성 개발 |
| ☐ ⑦ 다양한 체험 | ☐ ⑧ 기타() |

4.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두가지 선택)

- | | | |
|---|--|-------------------------------------|
| ☐ ① 이용료 | ☐ ② 프로그램 일정 | ☐ ③ 프로그램 내용 |
| ☐ ④ 강사, 담당자의 전문성 | ☐ ⑤ 지원인력(자원봉사자 등) | ☐ ⑥ 장애인 편의시설 |
| ☐ ⑦ 개별서비스 | ☐ ⑧ 그룹서비스 | ☐ ⑨ 기타() |

5.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두가지 선택)

- __① 취미교양(음악, 공예, 요리 등 취미생활 관련)
- __②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스포츠 경기 관람 등)
- __③ 동아리활동(음악, 뮤지컬, 연극 등)
- __④ 나들이·여행
- __⑤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볼링, 요가 등)
- __⑥ 가족 프로그램(가족캠프, 형제자매 프로그램 등)
- __⑦ 기타()

※ 다음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6.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7번으로)

6-1.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년 개월

7.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__① 일상생활능력 향상 __② 사회성 향상

__③ 특기적성 개발 __④ 학습능력 향상

__⑤ 다양한 체험 __⑥ 자립능력 향상

__⑦ 의사소통기능 향상 __⑧ 기타()

8.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두가지 선택)

- __① 이용료 __② 프로그램 일정 __③ 프로그램 내용
 __④ 강사, 담당자의 전문성 __⑤ 지원인력(자원봉사자 등) __⑥ 장애인 편의시설
 __⑦ 개별서비스 __⑧ 그룹서비스 __⑨ 기타()

9.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두가지 선택)

- | | |
|--------------------------|--------------------------|
| __① 일상생활훈련 | __②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
| __③ 사회적응 프로그램(지역사회시설 이용) | __④ 직업 및 적성개발 교육 |
| __⑤ 안전 및 건강교육 | __⑥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예술·체육 등) |
| __⑦ 인권, 권익옹호교육 | __⑧ 기타() |

※ 다음은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앞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 | | |
|-------|------------------|
| __① 예 | __② 아니요 (☞15번으로) |
|-------|------------------|

11. 귀하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 | |
|-----------------|----------------|
| __① 일상생활훈련 | __② 취업현장의 체험 |
| __③ 직업능력 향상 | __④ 취업 및 창업 |
| __⑤ 사회적응능력 향상 | __⑥ 사회적 안정·소속감 |
| __⑦ 삶의 보람 및 성취감 | __⑧ 기타() |

12. 귀하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 |
|------------------|----------------------|
| __① 이용료에 대한 부담 | __②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
| __③ 긴 대기기간 | __④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
| __⑤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 __⑥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
| __⑦ 기타() | |

13. 귀하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두가지 선택)

- | | | |
|---------------|---------------|--------------|
| __① 직업상담 및 평가 | __② 직업적응훈련 | __③ 자격증 취득교육 |
| __④ 직업훈련 | __⑤ 취업알선 및 연계 | __⑥ 기타() |

14. 귀하가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직종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 | ☐ ② 물류서비스(택배 등) |
| ☐ ③ 서비스직(식당, 카페 등) | ☐ ④ 사무직 |
| ☐ ⑤ 제과제빵, 요리사 등 | ☐ ⑥ 미용, 피부관리사 등 |
| ☐ ⑦ 요양보호사 등 | ☐ ⑧ 청소서비스직 |
| ☐ ⑨ 기타() | |

15.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번, ②아니요로 응답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 | | |
|---|---|
| ☐ ① 장애정도가 심해서 | ☐ ②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
| ☐ ③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 ④ 급여가 낮을 것 같아서 |
| ☐ ⑤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 ☐ ⑥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까봐(수급탈락 등) |
| ☐ ⑦ 기타() | |

※ 다음은 **자립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6. 현재 자립하고 있거나, 앞으로 자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 | | |
|------------------------------|---|
| ☐ ① 예 | ☐ ② 아니요 (☎19번으로) |
|------------------------------|---|

17. 귀하가 자립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일상생활(청소, 식사, 이동 등) | ☐ ② 경제적 어려움 |
| ☐ ③ 건강관리 | ☐ ④ 사회적 관계(이웃 등) |
| ☐ ⑤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 ☐ ⑥ 응급상황 대처 |
| ☐ ⑦ 기타() | |

18. 귀하가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두가지 선택)

- | | |
|--|--|
| ☐ ① 경제적 지원 | ☐ ② 건강관리 |
| ☐ ③ 직업재활, 취업 지원 | ☐ ④ 주거 지원 |
| ☐ ⑤ 일상생활 활동 지원 및 훈련 | ☐ ⑥ 활동지원사, 가사도우미 지원 |
| ☐ ⑦ 정서지원 | ☐ ⑧ 기타() |

19.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번, ②아니요로 응답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__①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서

__②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__③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__④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__⑤ 기타()

20. 남동구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설문 응답자에게는 장바구니가 제공되오니 응답을 완료하시고,
설문지를 배부받은 담당자에게 장바구니를 수령해가시기 바랍니다.

장애 중장년(39~6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분만 작성바랍니다.

1. 장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자립지원 프로그램 | ☐ ②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
| ☐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 | ☐ ④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 ☐ ⑤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 ☐ ⑥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등) |
| ☐ ⑦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 ☐ ⑧ 경제적 지원 서비스 |
| ☐ ⑨ 후견지원 사업 | ☐ ⑩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
| ☐ ⑪ 기타() | |

※ 다음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 ① 예 | ☐ ② 아니요 (☞ 3번으로) |
|------------------------------|---|

2-1.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3.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여가시간 활용 | ☐ ② 또래와의 어울림 |
| ☐ ③ 사회성 향상 | ☐ ④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
| ☐ ⑤ 보호자(가족 등)의 돌봄 부담 완화 | ☐ ⑥ 특기적성 개발 |
| ☐ ⑦ 다양한 체험 | ☐ ⑧ 기타() |

4.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두가지 선택)

- | | | |
|---|--|-------------------------------------|
| ☐ ① 이용료 | ☐ ② 프로그램 일정 | ☐ ③ 프로그램 내용 |
| ☐ ④ 강사, 담당자의 전문성 | ☐ ⑤ 자원인력(자원봉사자 등) | ☐ ⑥ 장애인 편의시설 |
| ☐ ⑦ 개별서비스 | ☐ ⑧ 그룹서비스 | ☐ ⑨ 기타() |

9.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두가지 선택)

- | | |
|--------------------------|--------------------------|
| __① 일상생활훈련 | __②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
| __③ 사회적응 프로그램(지역사회시설 이용) | __④ 직업 및 적성개발 교육 |
| __⑤ 안전 및 건강교육 | __⑥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예술·체육 등) |
| __⑦ 인권, 권익옹호교육 | __⑧ 기타() |

※ 다음은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앞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 | | |
|-------|------------------|
| __① 예 | __② 아니요 (☞15번으로) |
|-------|------------------|

11. 귀하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 | |
|-----------------|----------------|
| __① 일상생활훈련 | __② 취업현장의 체험 |
| __③ 직업능력 향상 | __④ 취업 및 창업 |
| __⑤ 사회적응능력 향상 | __⑥ 사회적 안정·소속감 |
| __⑦ 삶의 보람 및 성취감 | __⑧ 기타() |

12. 귀하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 |
|------------------|----------------------|
| __① 이용료에 대한 부담 | __②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
| __③ 긴 대기기간 | __④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
| __⑤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 __⑥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
| __⑦ 기타() | |

13. 귀하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두가지 선택)

- | | | |
|---------------|---------------|--------------|
| __① 직업상담 및 평가 | __② 직업적응훈련 | __③ 자격증 취득교육 |
| __④ 직업훈련 | __⑤ 취업알선 및 연계 | __⑥ 기타() |

14. 귀하가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직종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단순조립, 포장, 기계조작 등 | ☐ ② 물류서비스(택배 등) |
| ☐ ③ 서비스직(식당, 카페 등) | ☐ ④ 사무직 |
| ☐ ⑤ 제과제빵, 요리사 등 | ☐ ⑥ 미용, 피부관리사 등 |
| ☐ ⑦ 요양보호사 등 | ☐ ⑧ 청소서비스직 |
| ☐ ⑨ 기타() | |

15.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번, ②아니요로 응답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 | | |
|---|---|
| ☐ ① 장애정도가 심해서 | ☐ ②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
| ☐ ③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 ④ 급여가 낮을 것 같아서 |
| ☐ ⑤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 ☐ ⑥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까봐(수급탈락 등) |
| ☐ ⑦ 기타() | |

16. 남동구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설문 응답자에게는 장바구니가 제공되오니 응답을 완료하시고,
설문지를 배부받은 담당자에게 장바구니를 수령해가시기 바랍니다.

장애 노인(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분만 작성바랍니다.

1. 장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자립지원 프로그램 | ☐ ②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
| ☐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 | ☐ ④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 ☐ ⑤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 ☐ ⑥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등) |
| ☐ ⑦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 ☐ ⑧ 경제적 지원 서비스 |
| ☐ ⑨ 후견지원 사업 | ☐ ⑩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
| ☐ ⑪ 기타() | |

※ 다음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 ① 예 | ☐ ② 아니요 (☞3번으로) |
|------------------------------|--|

2-1.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3.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여가시간 활용 | ☐ ② 또래와의 어울림 |
| ☐ ③ 사회성 향상 | ☐ ④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
| ☐ ⑤ 보호자(가족 등)의 돌봄 부담 완화 | ☐ ⑥ 특기적성 개발 |
| ☐ ⑦ 다양한 체험 | ☐ ⑧ 기타() |

4.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두가지 선택)

- | | | |
|---|--|-------------------------------------|
| ☐ ① 이용료 | ☐ ② 프로그램 일정 | ☐ ③ 프로그램 내용 |
| ☐ ④ 강사, 담당자의 전문성 | ☐ ⑤ 자원인력(자원봉사자 등) | ☐ ⑥ 장애인 편의시설 |
| ☐ ⑦ 개별서비스 | ☐ ⑧ 그룹서비스 | ☐ ⑨ 기타() |

5.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두가지 선택)

- __① 취미교양(음악, 공예, 요리 등 취미생활 관련)
 __②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스포츠 경기 관람 등)
 __③ 동아리활동(음악, 뮤지컬, 연극 등)
 __④ 나들이·여행
 __⑤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볼링, 요가 등)
 __⑥ 가족 프로그램(가족캠프, 형제자매 프로그램 등)
 __⑦ 기타()

※ 다음은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6. 귀하는 누구로부터 일상생활을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까?

- __① 지원받지 않음 __② 활동지원사 __③ 요양보호사
 __④ 가족, 친인척 __⑤ 이웃, 친구 __⑥ 기관 및 종교단체
 __⑦ 기타()

7. 귀하가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두가지선택)

- __① 경제지원 __② 일상생활지원 __③ 정서지원
 __④ 주거지원 __⑤ 건강지원 __⑥ 문화여가지원
 __⑦ 기타()

8. 귀하가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를 **분야별로 1가지씩** 선택해주세요.

경제지원	__① 생활비 지원	__② 의료비 지원	__③ 교육비 지원
	__④ 식사, 반찬 지원	__⑤ 생필품 지원	__⑥ 기타()
일상생활지원	__① 가사 지원	__② 이미용 서비스	__③ 외출 지원
	__④ 주거환경개선	__⑤ 보장구 대여	__⑥ 기타()
정서지원	__① 전화상담	__② 방문상담	__③ 나들이
	__④ 문화여가활동	__⑤ 자조모임	__⑥ 기타()
건강지원	__① 건강검진	__② 건강교육	__③ 재활프로그램 지원
	__④ 체력단련실 운영	__⑤ 혈압, 혈당 관리	__⑥ 기타()

9. 남동구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설문 응답자에게는 장바구니가 제공되오니 응답을 완료하시고,
설문지를 배부받은 담당자에게 장바구니를 수령해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남동발간 2023-9

- 발행일 : 2023년 12월
- 발행인 : 손 동 훈
- 편집인 : 이 연 정
-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